

주간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교회 사목목회자 강금주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오늘, 추수 감사 주일

"은총의 자녀들이여!"

약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은총만을 감사하십시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2006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고백은 '오직 감사'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였는지 형통하지 않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은총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감사는 넘치고도 넘칩니다.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관을 씌우시며"(시 103:4).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배부른 주님을 향한 감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더욱 은총으로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감사로 담아 드리는 추수 감사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3부 예배는 모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족 연합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감사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경배하고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는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골 3:16). 우리의 감사가 이 땅에 있지 않고 십자가의 은총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곁을이 고난받은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 감사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 2:7).

*영아·유아·유치·고등부는 자체 예배

2007년 교회 전체 조직 및 일꾼 확정 발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참 믿음의 반석위에 교회를 세워진 일꾼들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보혈로 거듭난 일꾼들에게 맡겨진 교회의 각 기관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은 더욱 편만하게 땅 끝을 향해 전해될 것입니다(행 1:8). 물과 피로 거듭난 작은 교회인 자신에서부터 시작된 보혈의 열기는 가정, 이웃, 직장, 학교, 사회로 나아가 보혈의 은총이 필요한 모든 곳을 뜨겁게 달굴 것입니다(막 16:15).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 2007년 우리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십자가의 보혈로 건축되어 더욱 든든히 서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번엔 세움을 받은 일꾼들을 중심으로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마 16:24).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기대합니다!

*일꾼 명단은 본지 6면~21면을 참조하세요.

크리스마스 메시지② (금요집회)

약속을 간직한 시므온

시므온은 다니엘, 에스터, 마리아처럼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약속을 생각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 를 기다리던 사람들 중 마지막 사람이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와서 자신들이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야라며 부르짖었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마 24:23~27; 눅 21:33). 그러나 이 기다림의 세월이 끝나는 시간은 온다. 시므온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나이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의 나이가 많을 것으로 추측한다(눅 2:25,26).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나이가 아니라 그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약속이 임할 것을 기다렸다는 사실이다.

시므온은 죽음을 바라보고도 또한 죽었다(눅 2:29).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마 1:1). 또한 아벨, 에녹, 노아, 모세와도 달랐다. 이들은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과 싸워 이긴 사람들이다. 그러나 시므온은 두 세대의 문턱에 서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의 위로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였다. 예수께서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그의 부모는 신실한 유대인으로서 결례(潔禮)를 따라 할례를 행하고 제사를 드렸었다(마 2:22,23).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나야 했던 가난한 요셉은 율법대로 제사를 드릴 예물을 준비할 수가 없었다(마 12:6).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 안에서 나타내었다(마 12:8). 바로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위한 율법의 모든 요구도 완성시켜 주실 영원한 회생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다(히 9:12, 14,15).

시므온은 말로유와 온통 먼지투성이인 길거리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시므온은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갔고 오신 예수님을 그곳에서 팔로 안았다(눅 2:27,28). 시므온처럼 그 당시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 다윗 왕이 약속했듯이 어둠 속에서 오레 기다린 후, 그 날에 기쁨은 찾아왔다(시 42:1,2, 11). "주재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나도다." 곧 이스라엘의 위로요, 자기 자신의 위로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그의 가슴에 안고 있는 예수님이시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는 질병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나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변명과 의로움 등의 고난이 가득한 기다림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므온처럼 우리는 우리 모두의 위로를 가슴에 안을 수가 있다. 그뿐 아니라 살 속에서 바라고 기다릴 때에 받는 상처 안으로 스며드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또한 기다림의 끝에는 구원의 완전한 평안이 놓여 있으며 시므온도 그가 바라고 기다렸을 이 율법을 입증하여 주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진 빚을 밝혀 주는 그 빛이며 또한 이 빛이 이방을 비추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눅 2:30~32). 예수님의 평안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불확실한 우리의 삶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 때에 이는 결코 우리의 속사암만을 태우지는 않는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그 계시하심을 우리 안에만 가두어 둔다면 그 빛은 점점 어두워지게 되고 불꽃은 죽게 되고 만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밖으로 밝히 드러낸다면 우리는 이 빛을 들고 나아가는 등이 될 것이요, 어둠에 처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그릇이 될 것이다.

시므온은 그의 팔로 아기를 가슴에 안은 채, 자기 자신과 또 그가 바라보았던 영광의 비전으로부터 얼굴을 돌려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보며 축복하였다.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보좌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미움을 받 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눅 2:34). 진정으로 강한 힘과 일방적인 견해가 세상의 주권자 앞에 떨어질 것이다. 예상치 못했던 천한 어부들, 세리, 또 사장을 만기는커녕 좋아할 수도 없는 창기들이 그의 은총의 통지 아래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토록 당혹스러운 축복은 분명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까지도 함께 초래할 것을 말씀하였다. 참으로 이 아이가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치 않을 마지막 완전한 회생 제물이 될 것을 보았던 것이다. 갈보리산 위에서 그의 옆구리를 찌르는 창만이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는 슬픔의 칼날도 보았던 것이다(눅 2:35).

예수 그리스도의 입재하심으로 우리는 그의 평안과 또한 그의 통지하심 속에서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다(요 8:12, 16:33). 그러나 죄로 물들어진 이 세상, 고통이 현실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은 이 고통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 빛이 매일의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순간순간 체험한다. 이것이 곧 시므온의 말씀의 중심이며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에 계신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 위로 받으려고 주 앞에 나아오나이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나의 죄와 허물을 씻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나이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위로요, 믿는 자의 구원이시며, 이방의 빛이시며, 주님의 백성들의 영광이시이다."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WHAT ARE YOU DOING HERE?

(1) Now Ahab told Jezebel all that Elijah had done, and how he had killed all the prophets with the sword. ... (9) Then he came there to a cave, and lodged there; and behold,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im, and He said to him,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1 Kings 19:1~9)

As Christians, we all know how great the prophet Elijah is; even the New Testament revealed the magnitude of his significance as Peter, James, and John witnessed his appearing at Jesus' Transfiguration, "Elijah appeared to them along with Moses; and they were talking with Jesus" (Mk. 9:4). During his earthly life, not only did the word of the Lord come to him, but the Lord God made his word wondrously powerful. Elijah told Ahab, "As the Lord, the God of Israel lives, before whom I stand, surely there shall be neither dew nor rain these years, except by my word" (1 Kgs. 17:1). When the drought became severe, God provided a miracle everyday to feed him (1 Kgs. 17:9), and when God instructed Elijah to show himself again to Ahab, Elijah created a revival by demonstrating God's power over the popular gods of 850 false prophets, whom he killed thereafter. In front of all Israel, Elijah prayed, "Answer me, O Lord, answer me, that this people may know that You, O Lord, are God, and that You have turned their heart back again" (1 Kgs. 18:37). Everyone saw the fire of God come down from heaven, and they all fell on their faces to acknowledge that the Lord God is truly God.

All his life, Elijah worked for God and His people. He was a faithful and obedient servant that God used for mighty works. When Jezebel threatened to kill him, he became despondent, and ran away in fear for his life. In hiding, God came to this great prophet and said,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v. 9). Elijah made the crucial mistake of trusting and not denying himself. My dear friend, if you do not deny yourself, you will experience failure, no matter how strongly God has used you in the past. Pride takes down everyone without exception!

Even though Elijah's faith weakened, God still cared for him. As he ran away from his troubles and hid himself in the wilderness, he became depressed, sad, and overwhelmed by life's circumstances. Exhausted from running, he sat under a juniper tree in the wilderness and requested for himself that he might die, "It is enough; now, O Lord, take my life, for I am not better than my fathers" (v. 4). He wanted to quit. He became angry because he forgot God's victories. He experienced fear and loneliness because he forgot God's winnings. He lost the meaning of life and wanted to commit suicide because he forgot about God's love. Even in his confusion, God cared for him and sent an angel to visit him twice. What is interesting is that if he had truly wanted to give up then he would not have fled, so he was seeking after something, but something with no meaning. Have you ever had this feeling? Has your life in Christ ever

reached a point where one little thing, in the scope of all the good things Jesus has done for you, brought you into despair? Yet, you are here now because God still cared for you.

As God cared for Elijah physically, like a patient in a hospital, He also touched him spiritually. His angel fed and encouraged Elijah to arise and eat because God wanted to see him (vv. 5-7). When God met him, He asked him,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When God meets with you in this way, He asks, "What are you doing here?" Did you forget that God has been with you all your life? Do you not remember that He has accepted and answered your prayers, and used you as His tool for holy things? Elijah proclaimed and demonstrated the power of God's name; He changed the hearts of Israel, and cleaned up the bad religious ideas. Now, he is depressed after winning so many battles? What is he doing? The Lord God asked,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He started backsliding because he turned to the world. He looked at Jezebel, not the Lord. He was proud of his past history only, but God still called to him. Why should you, a Christian, ever lose the meaning of your life? If you are depressed right now, and struggling over worldly issues, please open your ears, so that you can hear God asking, "What are you doing here?"

God commanded Elijah, "Go, return on your way to the wilderness of Damascus, and when you have arrived, you shall anoint Hazael king over Aram; and Jehu the son of Nimshi you shall anoint king over Israel; and Elisha the son of Shaphat of Abai-meholah you shall anoint as prophet in your place" (1 Kgs. 19:15&16). God met Elijah on His holy mountain two times, and both times He asked him the same question, but the second time His words were quite soft and gentle,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vv. 9 & 13). His encouragement came with responsibility.

My dear friend, God wants to meet with you when you are depressed or in despair. He wants to see you wherever that place may be, because He wants to give you encouragement and responsibility. Listen to His voice. He is asking you, "What are you doing here?" You should feel bad because you forgot God and remembered the enemy, but God still loves you deeply. Peter also let his eyes see only the threats of Pontius Pilate, and he denied Jesus three times. The Lord asked him, "What are you doing here, Peter?" Please, give up your will, take your cross, and listen to Jesus' voice. Practice your faith! Only trust in God with all your heart, and you will win all your life. Amen. 🙏

다들 주일 설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함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와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열왕기상 19:1~9)



김석판 목사

선지자 엘리야

그리스도인이려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 역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눈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실 때 엘리야가 나타나 있는 것을 통해 그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 회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막 9:4).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말에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권세를 부어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함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왕상 17:1). 가을이 점점 더 심해져갈 때 하나님은 날마다 그를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왕상 17:9).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시기를 아함에게 보이라 하했을 때 엘리야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이름 있는 신들과 싸워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고 그 후 거짓 선지자들을 죽임으로써 신앙 부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와 하나님인 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왕상 18:37).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엎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이어말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을 믿었던 엘리야

엘리야는 일평생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데 사용하셨던 순종적이고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세벨이 그의 생명을 위협했을 때 낙심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위대한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9절). 엘리야는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놀라게 사용하셨던지 간에 말입니다. 고판은 누구든 예의 없이 넘어지게 만듭니다!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

엘리야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돌보셨습니다. 자신의 문제들을 피해 달아나 광야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 그는 너무나 지쳐 있었고 자신의 신세가 처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 때문에 그는 완전히 짓눌려 있었습니다. 도망치다가 기진맥진해진 엘리야는 광야의 로렘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4절). 그는 모든 것을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잊어버렸을 때 그에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했던 순간들을 망각함으로써 두려움과 외로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처럼 그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죽기를 원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워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돌보셨고, 두 번이나 천사를 보내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만일 그가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기를 원했다면 그렇게 멀리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 무언가를 쫓고 있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하찮은 일이 자신을 절망으로 몰고 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회복되는 엘리야

하나님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와 같은 엘리야의 육신을 돌보시면서 동시에 그의 영혼 또한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기를 원하시니 일어나 먹으라고 권했습니다(5~7절).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만났을 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셨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우상 숭배를 척결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왜 이렇게 낙담해 있는 것입니까? 그는 지금 왜 여기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뒷걸음치게 된 것은 세상을 돌아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나 이세벨을 쳐다 보았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행한 일에 매여 허덕이고 있는 그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낙담 가운데 있던 엘리야처럼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절망 속에서 헤매며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바둥거리고 있다면,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묻는 말을 들으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명을 받은 엘리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 매책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남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맛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왕상 19:15,16). 하나님은 호렘산에서 엘리야를 두 번에 걸쳐 만나주셨습니다. 두 번 모두 하나님은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두 번째 들린 하나님의 말씀은 부드럽고 온유하신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9,13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격려와 동시에 책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절망해 있을 때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곳이 어디이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책임을 맡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고 대적들을 의식해 불안해 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 역시 본디요 빌라도의 위협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의 죄는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반드시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참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

수요 1부 예배 메시지

여리고를 지나시며(누가복음 18:31~43)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위한 예루살렘 입성의 마지막 여정을 남겨두고 있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고 이리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유하리라”(눅 18:31).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그대로 행해졌다(겔 12:25).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눅 18:32,33).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노라”(눅 18:34a).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 다니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들었고, 놀라운 이적을 직접 보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채 따를 뿐이었다. “그 말씀이 감취었으므로 저희가 그 그리스인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눅 18:34b).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자. 여리고를 지나시며 또 한 명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거지의 형편 갈보리를 향한 예수님은 여리고 성을 향했다. 그 곳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던 거지 소경을 찾아가셨다(눅 18:35).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라고 한 소경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자신의 오랜 신앙 경험과 지식과 인격을 내세우며 영원한 죽음의 구덩이를 향해 가고 있지 않은가? 영적인 눈을 뜨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성령께서 자신의 진리를 내어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주신다. 비록 세상의 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고후 4:4). 비참한 거지의 형편은 우리의 모습이다.

거지의 십각함 거지의 형편은 비참하였지만 그의 심령은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주위로 사람들이 둘러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보통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더 풍족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대신에 소경은 무리들의 소리를 듣고 주위 사람들에게 십각하게 질문했다. “이 무슨 일이나?”(눅 18:36). 그의 심령에는 메시아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다.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랐던 제자들은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한 채 단순히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따라지만 아무 주시하고 찬양 소경의 심령은 이미 뜨거워져 있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무지는 곧 우리의 모습이다. 말씀

으로의 초대를 매번 핑계하며 거절하는 모습, 세상에서의 평범한 삶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포함한 모든 것을 제쳐두고 매달리는 간교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영의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때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 거지의 십각함은 결국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눅 18:37)라는 복음을 듣게 하였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소경의 마음을 열어 아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나사렛 예수께만 집중하게 하였다. “오직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요 12:38). 오직 은총의 사람, 믿음의 사람만이 구원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사 53:1).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지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거지는 부르짖었다 나사렛 예수를 향한 거지의 십각함은 그의 마음을 열어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게 하였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눅 18:38). 주변 사람들의 거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눅 18:39a). 그러나 거지는 오직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었기에 더욱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눅 18:39b). 거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바로 그 은총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후 6:2). 바로 자신의 고통과 계산 나사렛 예수를 향해 부르짖었다(행 17:27). 그는 자신에게 참구원과 영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뿐이었다(사 55:6 ; 마 7:7).

변화받은 거지 예수님은 거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아니 원래부터 예수님은 이 비참한 거지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는가? 예수님은 가련 길을 멈추시고 그 거지 소경을 데려와서 앉히셨다(눅 18:40). “다윗의 자손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라”(눅 18:41a)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소경은 대답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눅 18:41b). 이 간절한 간구에 예수님은 선포하셨다.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눅 18:42). 이 주님의 말씀으로 평생 남에게 의지하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거지 소경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랐기에 가능한 은총의 역사였다(요 14:13 ; 요일 5:14,15). 이제 변화 받은 거지는 자신을 위한 삶을 위해 세상을 향해 가지 않았다. 변화 받은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찾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메시아를 향한 찬양대의 지휘자가 되었다. “몸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를 찾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눅 18:43).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종교 지도자들과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가장 비천했던 거지를 찬양대의 지휘자로 세우신 주님의 은총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다. 자신의 경험, 학식, 인격, 교단, 자선사업을 모두 보멸의 능력으로 깨뜨리고 자기를 부인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그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걷자! ‘믿음이 이기면 주 예수님을 믿음이 온 세상이기!’(창 38:73). 아멘.

교회력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진 교회력
(敎會曆, Church Calendar)

시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성탄절 등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절기는 교회력의 한 부분이다. 특히 우리 교회는 교회력에 다른 설교와 각각의 절기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 교회력에 담겨 있는 풍성한 은혜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력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일어난 일들을 1년 주기로 기념하기 위하여 기독교인 사이에 형성된 교회의 전통이다. 그 1년을 전례연대(典禮曆年, Church Year)이라고 한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3대 축일 즉 유월절과 오순절을 계승하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죽음, 부활 그리고 부활 후 50일째에 일어난 성령강림을 매년 기념했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2대 축일인 부활절과 성령강림절이다. 특히 세례 준비를 위하여 성경 중에서 필요한 낭독 부분이 선택되고, 약 40일간 세례 준비를 하였는데, 이것이 사순절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은 새로운 신자의 성례 교육을 위하여 적합한 성서의 낭독 부분이 택해졌는데, 이것이 부활절의 기원이 되었다. 한편 하나님의 영광

의 출현이라는 구약 아래의 현현(顯現)의 신비적 의미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현(公顯)으로 이어져 크리스마스와 동원절이 생겨났다. 사순절과 부활절의 탄생을 본받아 대림절과 성탄절도 생겼는데,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일어난 일들을 기념하는데 초점이 있다.

1. 대림절 (Advent, 待臨節)

교회력의 첫 시작을 알리는 절기로서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하여 성탄절까지 계속되는 절기이다. 이 기간 중에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회개를 비롯하여 여러 모습으로 준비하는 기간이다. ‘Advent’의 뜻은 ‘오신다’(Coming)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성탄절을 기점으로 오신 예수님의 육적인 강림의 기다림이다. 두 번째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기다림이다. 세 번째로 세상 끝 날에 영광 중에 오실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다.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대림절인 것이다. 기간은 11월 30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에 성탄절 전까지 4주간 지킨다.

2. 성탄절 (Christmas, 聖誕節)

현재와 같은 성탄절이 초대 기독교에서는 없었다. 이 날은 이교들이 1년 중 가장 짧은 날인 ‘동지’를 택하여 태양의 아들이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이후 4세기에 이르러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였고 로마에 의해서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게 되었다. 기쁨의 절기인 성탄절은 ‘이 땅의 주권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한다. 기간은 12월 25일부터 1월 6일까지 지킨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노광현 (장로, 담회서기)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어느덧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사오니”(눅 15:18)의 말씀으로 시작한 한 해였기에 모든 성도에게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더욱 내어 놓았던 회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 년 동안 위임복사를 통해서 내려진 회개의 복음은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찾아왔으며, 자복 통회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성도들로 교회는 보혈의 열기로 가득 했습니다. 또한 원로목사를 향한 온 성도들의 기도는 얼마 전 그의 마음을 조금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더욱 원로목사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돌아오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금년에도 모든 열방과 족속을 향해 나아간 선교의 불길은 변함없이 뜨거웠으며 9천여 명이 넘는 단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혀 접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총은 죄로 가득한 충현의 성도들을 사용하였고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4:17)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이 우리의 심령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진심으로 회개하며 십자가를 드러내는 데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이 사로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예수님께 드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을 좇으며 적당히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

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골 2:4). 우리는 주변을 살펴 복음을 떠나려는 성도들이 있는지 더욱 돌아보며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2007년, 우리는 더욱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기초로 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참 신자들의 믿음 위에 참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라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이며, 성도들은 보혈로 만들어진 ‘그 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 그 길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을 쌓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사회적으로 모범생이고 인격적으로 추앙받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요 14:6).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통과 관습에 매여 여전히 유교, 불교, 정령 숭배가 혼합된 우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세속적인 신앙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엡 6:18). 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앙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이제 2007년의 모든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롬 15:16).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릴 예수의 일꾼입니다. 현재 이들은 주님께서 맡겨 주신 일로 인해서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악한 마귀의 역사는 더욱 치밀하게 역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더욱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대 목표를 위해서도 변함없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무너졌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도 무너져 지금은 혼탁한 남았습니다. 왜 교회가 무너졌을까요? 아마도 초대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처음에는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잘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며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대신에 세상의 풍조에 발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축복에 귀를 기울이며 세속화되어 결국 이전에 늘어난 부흥을 이루었던 모든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의 기초를 두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충현의 성도들이여! 우리의 교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흐른 뒤 우리 교회도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강한 철골과 돌로 지어진 교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골 6:14). 양의 가족을 잃은 채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길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2007년 입선 명단

[2007년도 시무권자 명단]

1교구

86-126	강신순	90-530	강원현	86-775	강국자	96-168	강성애
1371	강원희	83-617	강원희	89-1421	강원희	93-143	강원희
85-829	강원희	87-379	강원희	86-963	강원희	95-257	강원희
86-645	강원희	86-717	강원희	85-519	강원희	2851	강원희
4688	유성자	86-142	이영희	86-508	이영희	86-125	이영희
1050	이영희	83-1054	이영희	86-822	이영희	82-115	장정숙
87-81	최은진	89-734	전옥희	4475	최은진	84-612	전옥희
89-1139	최은진	81-869	최은진	2787	최은진	2436	홍성진
82-1174	최은진						

2교구

85-886	김진자	88-854	박노희	4992	구자남	85-43	권정자
85-820	김진자	93-1271	김진자	3880	김진자	3599	김진자
1590	김진자	3344	김진자	85-81	김진자	90-566	김진자
86-108	김진자	95-1464	김진자	2376	김진자	85-793	김진자
88-20	문민방	84-134	박영자	86-449	박영자	83-2	박영자
3406	박영자	4115	신진자	1300	신진자	2189	신진자
79-940	안정자	81-431	안정자	90-562	유복성	1356	유복성
199	유복성	88-560	문 순	4391	문순희	90-247	문순희
335	이영희	885	이영희	84-415	이영희	2386	이영희
81-95	정영자	4339	정영자	84-1305	정영자	84-40	정영자
4180	조순남	89-734	조순희	92-715	최은진	88-729	최은진
81-845	최은진	88-229	홍정숙	89-485	홍정숙		홍정숙

3교구

88-668	김진자	2777	김진자	552	김진자	86-45	김진자
86-336	김진자	2745	김진자	89-1183	김진자	2966	김진자
82-290	김진자	746	김진자	89-409	김진자	95-190	김진자
84-450	김진자	81-126	노은희	88-326	박영자	88-283	박영자
87-554	박영자	81-145	신진자	86-400	신진자	90-567	신진자
98-809	이영희	89-1556	이영희	82-601	이영희	89-1422	이영희
84-1135	최은진	84-1192	최은진	86-425	최은진	91-948	최은진
82-1326	최은진	89-825	최은진	84-431	최은진		최은진

4교구

86-864	구인숙	91-433	김진자	89-1472	김진자	88-282	김진자
79-267	박영자	83-73	박영자	87-591	박영자	91-27	박영자
2181	박영자	5008	안영자	2555	유복자	86-141	유복자
85-956	이영희	80-76	이영희	92-121	이영희	2041	이영희
82-415	이영희	80-634	이영희	94-136	이영희	91-500	이영희
87-663	이영희	85-253	이영희	1391	이영희	93-143	이영희
89-1023	최은진	92-770	조순남	88-933	조순희	86-245	조순희
89-1206	최은진	92-1256	최은진	3190	최은진	2350	최은진
89-1851	최은진						

5교구

91-1238	박영자	81-674	김진자	90-574	김진자	86-364	김진자
91-317	김진자	86-253	김진자	2719	박영자	94-624	박영자
86-43	김진자	92-1308	안영자	2282	안영자	93-732	유복자
95-299	이영희	84-345	이영희	92-49	이영희	86-360	이영희
95-1420	김진자	3411	김진자	4086	전영자	94-523	전영자
85-885	최은진	84-1207	최은진	87-540	최은진	82-7	최은진
90-573	최은진	85-734	최은진				

6교구

1723	김진자	84-63	박영자	88-965	구영자	88-1082	권영자
90-622	김진자	4547	김진자	96-242	김진자	88-143	김진자
88-153	김진자	85-836	김진자	88-886	김진자	2127	박영자
82-206	김진자	89-1455	안영자	200	조영자	84-630	조영자
2819	조영자	89-1114	조영자	4341	이영희	86-432	이영희
4919	이영희	2861	이영희	91-485	이영희	85-889	정영자
5393	최은진	79-633	최은진	874	최은진	86-844	최은진
82-435	최은진	85-54	최은진				

7교구

89-540	김진자	79-392	김진자	1419	김진자	89-416	김진자
180	김진자	85-577	김진자	741	김진자	79-96	김진자
247	박영자	82-230	박영자	761	박영자	93-651	박영자
769	박영자	92-478	최은진	4696	최은진	81-712	최은진
643	유복자	91-1028	유복자	80-10	유복자	84-77	유복자
2880	이영희	89-410	이영희	84-921	이영희	1471	이영희
93-678	이영희	1942	최은진	3378	최은진	80-244	최은진
81-404	최은진	80-201	최은진	84-134	최은진	3331	최은진
3696	최은진	2002-0221	최은진	84-1000	최은진	573	최은진
82-1137	최은진	85-1527	최은진	83-42	최은진	82-1244	최은진

8교구

3325	김진자	2559	구영자	3302	김진자	89-420	김진자
2610	김진자	5019	김진자	86-755	김진자	82-544	김진자
91-616	김진자	81-655	김진자	82-700	김진자	89-234	김진자
91-1107	박영자	82-223	박영자	81-296	박영자	3304	박영자
3210	이영희	4145	이영희	79-263	이영희	81-290	이영희
80-104	최은진	83-331	최은진	92-135	최은진	79-435	최은진
1748	이영희	4816	이영희	92-303	이영희	1006	이영희
196	이영희	2306	이영희	4452	이영희	87-384	이영희
2499	최은진	1313	최은진	3699	최은진		최은진

9교구

--	--	--	--	--	--	--	--

79-410	강원희	82-28	김진자	82-563	김진자	80-54	김진자
1343	강원희	79-353	김진자	5139	김진자	4104	김진자
4368	김진자	2355	김진자	87-215	김진자	5004	박영자
3675	박영자	5216	박영자	88-67	박영자	2818	박영자
4081	박영자	357	박영자	84-538	박영자	85-641	박영자
84-821	이영희	2006	이영희	4455	이영희	95-120	이영희
3321	이영희	85-155	이영희	87-33	이영희	92-1569	이영희
1311	이영희	3821	최은진	1409	최은진	84-966	최은진
3811	최은진	87-621	최은진	한 숙	최은진		최은진

10교구

81-38	김진자	80-784	김진자	97-909	김진자	80-1563	김진자
82-625	김진자	3631	김진자	90-5	김진자	1473	김진자
4998	김진자	1933	김진자	2716	박영자	83-613	박영자
79-245	박영자	1619	박영자	2948	박영자	2439	박영자
82-369	신진자	91-627	신진자	1788	신진자	1435	신진자
81-312	신진자	1958	신진자	87-77	신진자	83-1783	신진자
79-288	신진자	2380	신진자	80-402	신진자	84-462	신진자
81-414	신진자	80-56	신진자	938	신진자	93-127	신진자
634	최은진	80-396	최은진	82-575	최은진	2382	최은진
1588	최은진	3193	최은진	80-757	최은진	88-22	최은진
2400	최은진						

11교구

4731	최은진	94-1143	최은진	80-567	최은진	1063	최은진
89-1073	김진자	1342	김진자	378	김진자	91-171	김진자
186	박영자	1832	박영자	4011	신진자	80-683	신진자
85-578	신진자	404	신진자	2152	신진자	85-673	신진자
59	김진자	83-403	김진자	2269	신진자	439	신진자
4373	김진자	4102	이영희	4715	이영희	4243	이영희
442	이영희	79-117	이영희	85-641	최은진	87-521	최은진
80-484	최은진	155	최은진	319	최은진	176	최은진

12교구

94-1054	김진자	83-122	김진자	86-25	김진자	92-1049	김진자
93-225	김진자	5346	김진자	86-28	김진자	1479	김진자
93-309	김진자	88-367	김진자	5071	박영자	388	박영자
3103	박영자	79-69	박영자	79-112	박영자	3727	박영자
94-063	김진자	81-123	김진자	5271	신진자	589	신진자
2809	이영희	79-130	이영희	1382	이영희	89-613	이영희
1056	이영희	90-759	이영희	89-687	이영희	91-687	이영희
87-707	이영희	923	이영희	4204	이영희	81-19	이영희
82-780	최은진	50	최은진	2336	최은진	1834	최은진
963	최은진	80-465	최은진				

13교구

1067	김진자	83-103	김진자	84-807	김진자	93-214	김진자
89-1552	김진자	81-777	김진자	80-140	김진자	1576	김진자
83-653	박영자	92-208	박영자	82-739	박영자	89-138	박영자
94-1948	박영자	90-954	박영자	908	신진자	81-283	신진자
2687	신진자	81-64	신진자	4949	신진자	3242	신진자
80-711	이영희	3120	이영희	448	이영희	80-810	이영희
85-324	김진자	86-306	김진자	88-533	김진자	2395	김진자
89-547	김진자	86-584	김진자	2744	최은진	3880	최은진
86-780	최은진	2373	최은진	최은진			

14교구

82-791	김진자	3593	김진자	84-736	김진자	81-762	김진자
80-25	김진자	2679	김진자	5363	김진자	86-562	김진자
80-838	김진자	84-983	김진자	81-484	김진자	79-550	김진자
2845	김진자	84-533	김진자	83-173	김진자	92-13	박영자
84-740	김진자	85-636	김진자	2517	신진자	95-124	신진자
1836	신진자	93-626	신진자	79-28	신진자	2323	신진자
3335	신진자	1646	이영희	1304	이영희	86-634	이영희
81-776	이영희	89-765	이영희	1410	이영희	679	이영희
1906	이영희	4110	최은진	4701	최은진	91-735	최은진

15교구

81-542	김진자	4119	김진자	86-133	김진자	688	김진자
1760	김진자	89-575	김진자	87-747	김진자	84-137	김진자
89-672	김진자	96-166	김진자	90-420	김진자	84-661	김진자
93-1067	김진자	79-167	김진자	2360	김진자	92-58	신진자
82-203	신진자	86-611	신진자	2330	신진자	4491	신진자
86-610	신진자	85-786	신진자	84-1364	신진자	89-1032	신진자
94-545	이영희	82-145	이영희	3359	신진자	527	신진자
89-660	최은진	84-623	최은진	86-210	최은진	1332	최은진
87-683	최은진	86-374	최은진				

16교구

2489	김진자	80-424	김진자	89-894	김진자	85-724	김진자
85-883	김진자	2076	김진자	1671	김진자	89-159	김진자
4140	김진자	87-30	김진자	2087	신진자	84-1236	신진자
93-1300	김진자	80-256	신진자	82-31	신진자	2857	신진자
87-570	박영자	3317	신진자	94-718	신진자	82-68	신진자
88-94	신진자	2522	신진자	86-212	신진자	84-34	신진자
89-281	최은진	86-242	최은진	86-124	신진자	90-36	신진자

2007년 일간 평단

91-272 1050	최종현 홍민기	88-516 4675	최현숙 홍민숙	95-204 2002-0345	태평리 황봉민	2000-0565 한서재
2교구						
신안남접사						
88-650 94-1974	김규원 최준섭	97-61 93-121	김석철 홍종민	94-288 2003-0351	송동섭 이경록	
91-1020 97-692	김남식 김성재	89-674 1300	구재훈 김진규	95-1318 85-730	김경록 김진성	79-230 2000-0447
93-1271 92-614	김지철 류원철	97-61 88-627	김성배 송근태	94-492 94-233	김정하 양승길	96-637 89-605
93-1188 96-449	오유철 이민철	91-377 82-755	윤병복 이봉주	2386 91-179	윤승남 이성배	89-689 91-292
96-468 82-744	이수형 이정민	676 87-352	이승규 이종훈	94-696 95-420	이승철 이영진	97-422 199
89-771 82-466	장민준 유영민	685 2003-0101	최기환 최형호	93-2 81-945	정영서 최종훈	92-87 87-331
2002-0286	최희주	85-43	한정식	99-485	한정재	

신안남접사						
4992 91-683	신승연 조성철	85-52	양영미	80-663	이은숙	2002-0121
안남남접사						
93-1188 97-403	김병희 김정호	91-179 92-87	고금선 김기철	97-61 97-92	김경희 김기라	92-178 95-73
96-676 1901	김정호 김지영	2003-0194 95-191	김기현 김수진	94-288 97-268	김정현 김영희	84-482 92-377
97-662 93-2	김정호 김정호	85-735 2000-0291	김연순 김재현	92-143 94-1974	김정희 김정현	91-292 92-744
82-755 96-468	김정호 김정호	91-316 2003-0140	김정호 김재현	88-20 90-522	김정희 김정희	91-981 91-981
92-1727 92-614	노병철 노병철	79-84 95-191	홍지환 김기철	84-1050 92-1291	문종호 이영희	89-608 97-422
89-190 96-468	박영숙 박영숙	79-526 92-537	박현숙 이성희	91-178 89-085	박영희 서진희	93-945 96-853
99-608 90-1013	서진희 신영희	91-692 95-1	신영희 신영희	94-493 79-230	신영희 신영희	2002-0286 81-666
88-771 2363	신영희 이영희	1908 407	이영희 이영희	236 2000-0457	이영희 이영희	96-1113 97-1
89-719 91-275	오유철 유영민	2000-0447 96-739	오유철 유영민	91-17 88-818	오유철 유영민	97-437 97-435
87-331 93-116	유영민 이수진	88-940 90-302	유영민 이수진	2002-0007 97-352	유영민 이수진	97-352 91-914
94-233 94-449	이수진 이수진	2003-0101 91-703	이수진 이수진	95-680 95-135	이수진 이수진	90-318 85-15
83-731 99-625	이수진 이수진	676 2003-0223	이수진 이수진	95-135 91-692	이수진 이수진	93-121 91-703
86-1077 92-87	이수진 조성철	95-1782 87-819	이수진 조성철	91-764 93-307	이수진 조성철	91-703 92-1040
91-363 97-652	조성철 조성철	99-949 91-1202	조성철 조성철	2004-0106 2003-0221	조성철 조성철	2004-0755 86-838
83-669 85-43	최정호 최정호	96-1217 1590	최정호 최정호	95-577 85-754	최정호 최정호	97-410 84-848

3교구						
신안남접사						
2006-0192 2001-0498	신동섭 황석규	2004-0113 2004-0255	이종훈 이종훈	2004-0255 93-283	이종훈 정재용	
신안남접사						
93-617 96-1178	김영숙 김정호	97-603 91-1201	고정호 김정호	79-336 88-587	권영호 김정호	89-825 92-286
96-635 97-114	김정호 김정호	93-142 82-290	김정호 김정호	97-375 94-232	김정호 김정호	99-337 93-329
97-969 85-639	김정호 김정호	2001-0269 2005-0430	김정호 김정호	95-74 92-1245	김정호 김정호	99-155 94-1193
88-95 92-134	김정호 김정호	88-1329 89-629	김정호 김정호	82-601 89-1229	김정호 김정호	82-601 84-1135
99-625 82-801	김정호 이수진	97-619 86-672	김정호 이수진	97-619 92-755	김정호 이수진	97-619 92-755
92-1208 85-531	이수진 이수진	94-626 91-133	이수진 이수진	81-126 91-133	이수진 이수진	81-126 91-133
92-660 86-640	이수진 이수진	91-373 92-0215	이수진 이수진	91-373 95-655	이수진 이수진	91-373 95-655
93-632 93-632	이수진 이수진	91-597 2000-0389	이수진 이수진	91-597 2996	이수진 이수진	91-597 2996

신안남접사						
94-65 2004-0295	권영호 박영숙	2004-0715 2004-0437	김정호 이은숙	99-958 2000-0570	김정호 최준호	2004-0099
89-40 87-599	김정호 김정호	89-1329 92-1150	김정호 김정호	97-606 86-563	김정호 김정호	93-1012 90-478
82-648 95-1165	김정호 김정호	96-994 92-560	김정호 김정호	92-290 85-978	김정호 김정호	91-820 92-1029
89-591 87-603	김정호 김정호	92-795 96-630	김정호 김정호	2001-0496 95-183	김정호 김정호	90-915 93-142
90-390 93-231	김정호 김정호	2003-0518 81-401	김정호 김정호	92-651 85-491	김정호 김정호	90-436 2002-0291
89-40 87-599	김정호 김정호	89-1329 92-1150	김정호 김정호	97-606 86-563	김정호 김정호	93-1012 90-478

94-673 95-788	박영숙 박영숙	92-1208 96-609	박영숙 박영숙	85-735 83-826	박영숙 박영숙	96-609 85-735
2000-0269 94-369	박영숙 박영숙	96-327 96-1178	박영숙 박영숙	95-1046 87-85	박영숙 박영숙	96-327 96-1178
96-1015 198	박영숙 박영숙	97-114 99-239	박영숙 박영숙	88-194 93-144	박영숙 박영숙	96-1015 198
93-1854 93-697	박영숙 박영숙	99-1054 93-1245	박영숙 박영숙	96-236 93-1245	박영숙 박영숙	93-1854 93-697
1868 96-635	박영숙 박영숙	2842 2000-0591	박영숙 박영숙	96-301 96-301	박영숙 박영숙	1868 96-635
94-464 96-1700	박영숙 박영숙	94-464 95-74	박영숙 박영숙	95-74 95-74	박영숙 박영숙	94-464 96-1700
92-1245 98-424	박영숙 박영숙	93-1759 95-639	박영숙 박영숙	93-1759 95-639	박영숙 박영숙	92-1245 98-424
94-1555 94-1342	박영숙 박영숙	90-532 84-232	박영숙 박영숙	90-532 84-232	박영숙 박영숙	94-1555 94-1342
92-666 94-1088	박영숙 박영숙	3890 93-283	박영숙 박영숙	3890 93-283	박영숙 박영숙	92-666 94-1088
5083 89-1520	박영숙 박영숙	85-68 93-687	박영숙 박영숙	85-68 93-687	박영숙 박영숙	5083 89-1520
85-519 95-190	박영숙 박영숙	94-280 96-190	박영숙 박영숙	94-280 96-190	박영숙 박영숙	85-519 95-190
91-1201 83-62	박영숙 박영숙	한준호 83-62	박영숙 박영숙	한준호 83-62	박영숙 박영숙	91-1201 83-62

4교구						
신안남접사						
2001-0334 90-307	문종호 김정호	85-255 90-307	오성현 김정호	93-1022 93-964	이대형 김정호	
89-252 85-141	김정호 김정호	86-17 86-141	김정호 김정호	81-1022 96-141	김정호 김정호	89-252 85-141
94-287 97-625	김정호 김정호	96-259 93-983	김정호 김정호	96-259 93-983	김정호 김정호	94-287 97-625
95-613 92-770	김정호 김정호	90-960 91-600	김정호 김정호	95-613 91-600	김정호 김정호	95-613 92-770
83-392 89-78	김정호 김정호	96-783 91-31	김정호 김정호	96-783 91-31	김정호 김정호	83-392 89-78
89-900 95-253	김정호 김정호	95-1740 96-156	김정호 김정호	95-1740 96-156	김정호 김정호	89-900 95-253
85-466 97-470	김정호 김정호	93-1851 96-264	김정호 김정호	93-1851 96-264	김정호 김정호	85-466 97-470
91-629 86-605	김정호 김정호	92-1256 93-211	김정호 김정호	92-1256 93-211	김정호 김정호	91-629 86-605
91-106 90-912	김정호 김정호	94-944 93-944	김정호 김정호	94-944 93-944	김정호 김정호	91-106 90-912
94-136 94-1340	김정호 김정호	96-552 93-927	김정호 김정호	96-552 93-927	김정호 김정호	94-136 94-1340
85-900 97-70	김정호 김정호	99-114 97-70	김정호 김정호	99-114 97-70	김정호 김정호	85-900 97-70
2000-0025 97-349	김정호 김정호	93-1022 98-158	김정호 김정호	93-1022 98-158	김정호 김정호	2000-0025 97-349
89-1049 87-944	김정호 김정호	91-693 96-578	김정호 김정호	91-693 96-578	김정호 김정호	89-1049 87-944
92-751 93-266	김정호 김정호	93-1431 2003-0131	김정호 김정호	93-1431 2003-0131	김정호 김정호	92-751 93-266
85-240 96-349	김정호 김정호	85-454 95-691	김정호 김정호	85-454 95-691	김정호 김정호	85-240 96-349
4624 91-240	김정호 김정호	87-249 87-249	김정호 김정호	87-249 87-249	김정호 김정호	4624 91-240

신안남접사						
3190 4624	권영호 김정호	91-457 87-249	박영숙 김정호	92-49 89-288	신영희 김정호	
안남남접사						
79-92 93-427	김정호 김정호	80-812 96-84	김정호 김정호	93-124 93-191	김정호 김정호	79-92 93-427
96-264 89-1335	김정호 김정호	92-995 96-746	김정호 김정호	93-194 94-184	김정호 김정호	96-264 89-1335
94-1560 82-153	김정호 김정호	96-164 2005-0491	김정호 김정호	94-1560 93-836	김정호 김정호	94-1560 82-153
81-729 79-370	김정호 김정호	93-1263 94-1183	김정호 김정호	93-1263 94-1183	김정호 김정호	81-729 79-370
90-947 92-488	김정호 김정호	91-31 97-903	김정호 김정호	91-31 97-903	김정호 김정호	90-947 92-488
99-618 92-110	김정호 김정호	2003-0094 93-72	김정호 김정호	99-618 93-72	김정호 김정호	99-618 92-110
95-402 92-1339	김정호 김정호	94-21 91-685	김정호 김정호	95-402 91-685	김정호 김정호	95-402 92-1339
86-17 84-689	김정호 김정호	91-944 2998	김정호 김정호	91-944 2998	김정호 김정호	86-17 84-689
95-67 2006-0123	김정호 김정호	97-778 93-964	김정호 김정호	97-778 93-964	김정호 김정호	95-67 2006-0123
90-393 93-1332	김정호 김정호	93-1109 93-933	김정호 김정호	93-1109 93-933	김정호 김정호	90-393 93-1332
97-315 86-783	김정호 김정호	93-933 95-18	김정호 김정호	93-933 95-18	김정호 김정호	97-315 86-783
93-1812 90-825	김정호 김정호	97-731 91-900	김정호 김정호	97-731 91-900	김정호 김정호	93-1812 90-825
3439 95-1044	김정호 김정호	95-1044 93-1037	김정호 김정호	95-1044 93-1037	김정호 김정호	3439 95-1044

96-1518 98-228	이영희 이영희	83-158 97-609	이영희 이영희	95-454 94-1957	이영희 이영희	95-100 95-67
91-1010 86-187	이영희 이영희	97-609 92-783	이영희 이영희	95-454 94-1957	이영희 이영희	95-100 95-67
96-616 94-1344	이영희 이영희	91-753 91-413	이영희 이영희	95-454 94-1957	이영희 이영희	95-100 95-67
92-751 95-499	이영희 이영희	92-751 95-499	이영희 이영희	92-751 95-499	이영희 이영희	92-751 95-499
94-1344 92-1254	이영희 이영희	94-1344 92-1254	이영희 이영희	94-1344 92-1254	이영희 이영희	94-1344 92-1254
95-499 92-1254	이영희 이영희	95-499 92-1254	이영희 이영희	95-499 92-1254	이영희 이영희	95-499 92-1254
94-1344 92-1254	이영희 이영희	94-1344 92-1254	이영희 이영희	94-1344 92-1254	이영희 이영희	94-1344 92-1254
92-751 95-499	이영희 이영희	92-751 95-499	이영희 이영희	92-751 95-499	이영희 이영희	92-751 95-499
94-1344 92-1254	이영희 이영희	94-1344 92-1254	이영희 이영희	94-1344 92-1254	이영희 이영희	94-1344 92-1254
95-499 92-1254	이영희 이영희	95-499 92-1254	이영희 이영희	95-499 92-1254	이영희 이영희	95-499 92-1254

2007년 일간 평단

97-619	이보현	89-1275	이진규	93-1884	이창영	81-1002	장세웅	94-1987	이준하	95-1264	이현숙	2004-0594	임남빈	84-423	임도화	84-538	최관익	96-1018	최진원	95-1376	하준근	87-576	홍관희
97-372	전민석	91-372	전성진	479	전세홍	1280	정수일	84-685	정영호	88-357	정희호	3102	정혜숙	80-230	정희숙	89-741	홍기훈	84-160	홍석표	1212	홍국근	1212	홍윤진
89-736	정영태	2001-0155	정성진	94-21	정세홍	90-622	조국환	92-740	전영경	89-807	전미아	85-394	정혜태	87-428	조진천	89-273	황기수	91-1138	황인걸	4104	황일선		
89-172	조종수	91-1181	조종근	86-380	조재순	90-527	최기환	2000-0064	조영현	80-849	주미경	82-183	지숙자	86-383	차재현								
5364	최승훈	2003-0315	최칠준	91-485	최진	813	한상호	95-336	최희자	92-1680	최희정	438	최형미	96-841	최희희								
5329	한승림	89-1330	한승남	96-454	한준규	88-143	함정호	84-1209	최은아	95-1456	최정현	92-1034	최정현	96-101	최진								
84-001	한병선							96-377	최희관	99-893	한희숙	95-355	한태순	2183	하은순								
								93-255	홍희경	87-125	홍승연	89-305	홍익숙										

83-514	강선영	92-435	김금순	91-657	김갑진	91-1191	김정현	2003-0315	김지선	86-628	김재경	97-167	박정호										
85-432	최현숙																						

4699 박남상 2001-0100 이준하																							
연임남적자												4401 김경숙 86-590 김희자 96-534 고지영 84-1386 김호찬 92-463 김현태 82-667 김갑진 86-123 김현숙 2852 김병태 94-192 김희숙 95-667 김희정 88-640 남유자 2000-669 김갑진 82-535 문정숙 89-176 박남자 84-653 박영자 2000-520 박민석 88-590 박민호 80-860 박영민 3230 박영진 2000-0638 박민자 92-1735 박희자 88-795 박희숙 90-518 박희자 81-257 박희정 95-321 박희정 87-166 박민호 81-330 박민호 80-416 박민호 83-434 송순애 95-273 신은정 92-273 신은정 80-242 신은정 4583 신은정 84-247 신은정 90-1066 양희숙 2000-0158 양희숙 81-296 양영금 87-621 양민선 81-294 양민선 80-708 양순근 80-797 양순자 84-988 이영호 84-56 이덕진 89-230 이영자 2002-0199 이영호 89-990 이영호 83-112 이영호 2003-0035 이숙연 95-784 이영호 89-941 이영호 95-667 이영호 2001-0420 이현실 2000-0287 이영호 89-935 이영호 92-47 이영호 85-682 이영호 89-155 이영호 84-988 이영호 561 이영호 87-294 이영호 81-18 양수자 83-629 장미현 1212 진희선 80-792 장미현 84-541 장영애 92-61 장영애 84-541 장영애 92-61 장영애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355 장미현 84-988 장미현 95-285 장미현 84-541 장미현 92-61 장미현 81-16 장미현 2006 장미현 86-705 장미현 2											

2007년 일관 명단

2001-0054	이재원	82-576	이준희	96-716	이창규	88-140	이호식
99-1429	장민희	79-443	장영남	487	조승수	92-696	조종목
2000-0159	조종목	99-1021	조인영	1016	지창환	91-967	최낙은
92-1265	최근규	91-1178	황은성				
신임이사							
2002-0229	김영철	2385	문민선	88-927	문찬식	86-94	이백재
90-1091	양승철	88-743	윤 회				
연임이사							
87-843	강승민	2000-0255	고국순	2004-0554	곽수진	98-58	곽인숙
99-1159	구부희	96-630	권영진	92-241	권영호	85-465	김경순
96-9	김기원	88-629	김영희	85-883	김영희	2000-0159	김미숙
342	김기자	92-1255	김영자	88-443	김기진	85-537	김남근
85-274	김승희	91-294	김영자	89-130	김영희	499	김영희
1016	김승희	95-1215	김영숙	92-778	김은진	95-283	김영남
88-330	김승희	88-188	김준자	83-361	김은희	91-522	김영희
96-225	김영희	87-560	노효원	87-460	노희영	94-246	김영애
1968	박희자	90-257	박희자	85-184	박희자	91-11	박영남
84-1024	박희자	87-207	박희진	82-347	박희진	83-703	박순진
2001-0189	사정현	88-1012	서정현	90-704	서정현	93-345	손은성
87-644	손은성	84-383	손은진	92-939	손기자	91-967	신성숙
85-870	신승자	87-1	신은진	92-536	신승자	91-178	신은애
92-1746	신승자	84-806	이영자	95-456	유정자	337	유은애
96-480	유정자	4043	이영진	92-1166	이영진	2002-0387	이재훈
83-581	이동원	79-443	이영순	94-1581	이영희	86-1197	이성민
99-1257	이영희	90-378	이영희	93-1705	이영희	81-727	이영숙
88-127	이영희	88-294	이영자	95-676	이영자	84-333	이영희
95-246	이영진	2380	이영자	99-1242	이 진	94-356	이영희
93-505	이영숙	82-364	이영숙	95-990	임영순	97-79	임미희
83-550	임영남	93-98	임영진	1969	임영진	89-154	임영희
85-678	홍영숙	81-125	정민희	84-383	정민희	95-21	정민희
94-262	정민희	89-1429	정민희	487	정민희	3855	정민희
87-604	정민희	93-124	정민희	92-586	조은희	88-803	조은희
93-1832	조은희	84-1338	최신자	83-161	최은희	96-666	최은희
4440	최희희	92-1471	최정미	83-856	최영희	88-336	최은희
87-735	최희희	99-215	최은진	91-182	최희희	93-678	최은희
93-694	최희희	2003-0238	황희자	92-203	황희자	4265	황희자
17교구							
신임장비사							
84-461	김태진						
연임장비사							
1492	김태진	92-1167	고재선	89-625	공영숙	84-1194	김경태
95-1187	김태진	92-705	김태선	2000-0235	김태선	84-1084	김경태
88-695	김태선	2003-0079	김영선	93-1531	김영선	504	김경태
86-590	김태선	86-651	김영선	91-437	김영선	96-286	김경태
81-085	김영선	2000-0509	나태선	5012	나태선	96-1011	김민기
96-303	나태선	89-1009	박민선	87-437	박민선	91-646	박민선
2002-0385	박민선	87-842	박민선	93-409	박민선	91-646	박민선
3661	박민선	94-1134	박민선	2000-0106	박민선	92-1210	박민선
89-30	안영숙	80-672	안영숙	92-0327	황은성	2795	윤상현
85-694	윤상현	92-756	이영규	89-1122	이영희	3005	이영희
1842	이영희	82-614	이성일	89-320	이영희	96-1210	이영희
3745	이영희	3009	이영희	88-532	이영희	95-503	이영희
2005-0246	이영희	2889	이영희	89-733	정영진	88-610	정영진
95-115	전진일	85-416	정영진	2003-0208	정영진	1309	정영진
94-1359	정영진	90-839	정영진	88-230	정영진	85-65	주인호
92-850	정영진	95-329	한민수	92-736	한민수	3365	한민수
83-473	한민수	2464	황희자				
신임이사							
84-90	김영아	84-1325	이은혜				
연임이사							
2145	김영희	94-245	김민자	86-178	고은희	97-686	고국영
92-755	곽희희	2000-0106	구영숙	2000-0331	구영숙	87-842	김경희
90-839	김경희	2002-0385	김미희	87-334	김경희	87-549	김경희
79-385	김경희	93-409	김순자	88-037	김경희	93-589	김영주
3661	김경희	86-230	김영희	84-672	김경희	88-685	김재남
1091	김영희	86-416	김영희	3065	김영희	79-385	김혜숙
2000-0079	노태선	88-360	노태선	82-469	노태선	91-612	박기순
4586	박기순	2003-0545	박민선	92-42	박민선	87-603	박민선
84-1194	박민선	89-1009	박민선	91-646	박민선	3661	박민선
84-225	박민선	89-625	서정현	82-400	서정현	79-15	서정현
3609	송국영	96-329	송희순	80-672	신은희	89-1122	신은희
89-1505	신은희	81-536	신은희	85-45	이영희	93-1531	임영진
96-733	임영진	88-626	이영희	95-269	이영희	92-736	이영희
85-119	이영희	84-1039	오정자	89-1009	유영희	2889	유영희
1515	유영희	92-1143	오정자	92-1210	오정자	89-1244	유영희
83-448	오정자	92-105	이은성	2000-0333	이은성	95-593	이은성
93-1064	이은성	90-665	이영희	2003-0208	이영희	94-1359	이영희
84-1262	이영희	1809	임영진	4946	임영진	88-1116	임영진
89-694	임영진	87-437	정민희	97-247	정민희	83-419	정민희
93-832	정민희	94-1134	정민희	85-1187	정민희	96-303	정민희
95-115	정민희	3365	조은희	96-1011	조은희	96-1210	조은희
81-163	조은희	4641	최희자	2000-0237	최희자	84-673	최희자
5277	최희자	81-163	최희자	3410	최희자	88-414	최희자
1492	최희자	91-646	최희자	90-30	최희자	95-60	최희자
95-281	최희자	2000-0509	황희자	84-1084	황희자		

18교구

신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연임장비사

[2007년도 관할 명단]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5교구

6교구

7교구

8교구

9교구

10교구

11교구

12교구

13교구

14교구

15교구

16교구

17교구

18교구

19교구

20교구

21교구

22교구

23교구

24교구

25교구

26교구

27교구

28교구

29교구

30교구

31교구

32교구

33교구

34교구

35교구

36교구

37교구

38교구

39교구

40교구

41교구

42교구

43교구

44교구

45교구

46교구

47교구

48교구

49교구

50교구

51교구

52교구

53교구

54교구

55교구

56교구

57교구

58교구

59교구

60교구

61교구

62교구

63교구

64교구

65교구

66교구

67교구

68교구

69교구

70교구

71교구

72교구

2006년 일꾼 명단

【 2007년도 각 위원회 일꾼 명단 】

당 회

서 기 / 노광현 부 서 기 / 김단용

예배위원회

위 원 장 / 이 훈 지 도 / 정진호
 서 기 / 안동현 회 계 / 황의만
 부 지 도 / 윤인숙 홍순애 김정연
 실행위원 / 조종광 강진택 안노수 최남하 조종민 노태경 심화민 김해길 권오준 박광석
 박준근 유병철 이홍우

예배부

부 장 / 원용철 위 원 / 이창호 신상수 정창수
 차 장 / 조종민
 1부 예배 / 조장 최남하
 2부 예배 / 1층 조장 심화민 2층 조장 안노수
 3부 예배 / 1층 조장 조종광 2층 조장 강진택
 4부 예배 / 1층 조장 김해길 2층 조장 권오준
 5부 예배 / 조장 노태경
 찬양예배 / 조장 박준근
 수요일예배 / 1부 조장 강진택 2부 조장 조종광

성례부

부 장 / 이형수 위 원 / 최차용 부지도 / 김정연
 차 장 / 권오준 양승복 심효숙 이미재 이인숙
 1조 조장 / 백영기 조원 / 강신순 강옥련 김양자 김은숙 문인란 박은혜 박효지 양삼순 이근덕 이수자
 정길자 정복순 최선자 최은희

2조 조장 / 김은숙 조원 / 김숙자 박영임 유선덕 이종영 정현자 조종선

3조 조장 / 이금순 조원 / 구정희 심영애 안경자 이요복

4조 조장 / 임옥환 조원 / 변금순 변성숙 변옥희 이영숙A 이영숙B 최영득

5조 조장 / 염숙현 조원 / 강영자 고경숙 박영은 이영희 최 규 현명덕

안내부

부 장 / 안동현 위 원 / 한송규 최윤덕 임복섭 부지도 / 윤인숙
 차 장 / 구원섭 정은희

1부 예배

조장 / 김인희 조원 / 강태영 김영호 김승기 이한재 최난영

2부 예배

1층 조장 / 박석봉 조원 / 문우식 박경희 송영상 신명자 신용한 양삼순 원정희 정미순 정은희 최영애
 2층 조장 / 모미애 조원 / 고상숙 모숙현 서성미 양계곤 유효순 이미숙 이정희

3부 예배

1층 조장 / 박옥림
 조원 / 권영일 김경숙 김두순 김미리 김영길 김종서 김철수 김현근 김희수 민영기 신명자 원종삼 유현숙
 이명희 이언구 조연이 한정희 홍경숙 황경분

2층

조장 / 장철환
 조원 / 권남강 권영신 김 근금순 김경영 노명순 박병근 서옥선 윤석구 이옥자 이형자 임태원 장관규

4부 예배

1층
 조장 / 최만우
 조원 / 김옥선 박복수 박성애 박소연 서혜경 유복심 윤자옥 이만순 이상순 강숙희 권명식 지영순 한기희
 한영란
 2층 조장 / 황정희 조원 / 김재명 김경희 문경숙 박용연 배만수 이미주 최희숙 한영자

5부 예배

조장 / 손항아
 조원 / 김소경 김효민 김효주 박준규 윤지원 윤혜정 이태오 이복희 이현희 장태은 지은미 최희재 황예리
 찬양 예배
 조장 / 구원섭 조원 / 강은숙 김경숙 김영구 김희수 남용철 박경희 송영상 임병준 정은희

수요일 예배 조장 / 정은희 조원 / 김하경 서옥선 심금숙 최영애

수요일 예배 구원섭 남용철

금요일 예배 구원섭 박광석 이상혜 이한재

세례기도회 월화 / 구원섭 이양호 수목 / 송영상 이한재 금토 / 김동철 황재현

헌금부

부 장 / 황의만 위 원 / 김영달 박철구
 차 장 / 박광석 박광자 부지도 / 홍순애

1부 예배

조장 / 정철석 교역자 / 김정자
 조원 / 김기종 김동만 김성현 박남주 박석산 박재현 백종은 양상환 유병수 이경환 이상배 이선홍 이상남
 이만용 이일식 이은식 임광선 임병준 임우도 임준희 장경옥 장지환 정재복 정 준 한용택 한홍연 황재현

2부 예배

1층
 조장 / 이숙희 교역자 / 전은희
 조원 / 강영자 공경자 권경자 권진숙 김옥희 김봉재 김경순 김광민 김신순 김영권 김옥희 김경배 박귀원
 배연식 변관재 신정희 안숙자 유병순 윤용환 이광자 이금자 이동심 이병순 이영선 이은희 이정희 이현주
 강병태 정종수 정순숙 정옥희 정호진 최문홍 최순금 최순복 최영동 최진희 최준자 한만식

2층

조장 / 박은숙 교역자 / 김정희
 조원 / 김태수 김부영 민명옥 박건일 박윤환 송해숙 신덕길 신화숙 양명숙 오형심 이경희 이명희 이수애
 조숙애 조은숙

3부 예배

1층
 조장 / 김경숙 교역자 / 홍순애
 조원 / 강 순 강철석 강향순 고미숙 고숙자 고영애 김명숙 김순자 강양선 김연단 김영희 김임숙 김정복
 김경수 김경순 김경순 김주분 김자순 김자영 김학희 김화순 김희숙 김희옥 김희진 남일홍 노본선
 문미선 문우식 박근덕 박대근 박연자 박영희 박정혜 박현주 배은디 백남식 서귀순 손영옥 송광순 신희섭
 심호섭 안효선 유리순 유복심 유종희 유향란 유화자 이광주 이금주 이명금 이명호 이분란 이수정 이영숙
 이형찬 임삼태 임영숙 임영심 임진숙 임광진 경미래 정신숙 정영애 정경자 주영선 최복태 최옥희 최정자
 최원숙 하발영 하미옥 함진옥 황선진

2층

조장 / 박광자 교역자 / 최문실
 조원 / 고영희 김명진 김순애 김숙희 김애순 김영연 김영실 김옥자 김경숙 김경자 김금규 김한숙 김현자
 남상인 노현재 문두남 문영남 문정윤 박금자 박종숙 박향란 박정숙 서경자 서진원 손복희 신조자 안 국
 안상익 엄합순 유승원 유옥련 이경애 이광희 이보남 이상옥 이라곤 이인숙 이창근 정영배 조남일 조복숙
 조옥자 자은자 최명호 최영옥 최정자 한옥남 홍복기 홍현주 홍현희

4부 예배

1층
 조장 / 김현순 교역자 / 안태순
 조원 / 강경희 강종애 고임순 공은순 구정희 김애순 김경애 김동화 김순애 김영규 김영미 김원분 김인환 김효자
 박재귀 상순순 손명민 송영자 송종석 신경숙 심영은 안은숙 오정림 유치순 유효근 이경자 이명희 이수자
 이종희 이한복 임학근 장선자 전순옥 장상임 정영숙 차명진 최명진 최은희 최옥현 한정옥 함자옥

2층

조장 / 이분옥 교역자 / 장영미
 조원 / 강복선 김경희 김명화 김문자 김성자 김순옥 김승희 김희자 김희숙 박귀순 박병순 석영자 송준임
 안근희 이규자 이기애 이선록 이희실 이혜순 이창자 이해주 정금자 정금자 조자순 최경순 최원주 한금래

5부 예배

조장 / 황인호 교역자 / 류진희
 조원 / 갈지혜 강윤정 김지희 김현선 박철호 심왕혁 유준혁 이다정 이동훈 이민애 이정희 이준기 정성철
 정희미 조현국 주민성 최명기 최원주 황미희

수요일 2부 헌신예배

조장 / 최진성 교역자 / 홍순애
 조원 / 강 옥 강진태 강요환 강홍선 강승희 강종민 김화순 류태준 박근민 박옥자 박준근 서진원 송순호
 심효숙 이병근 이수자 이숙희 이정희 정순옥 정순진 정옥희 정은순 정철석 최계열 최영민 한용택

찬양위원회

위원장 / 이종석 지 도 / 장 훈
 서 기 / 이계인 회 계 / 임창식
 찬양감독 / 강임규 전임지휘자 / 서준성 김원섭 전임독창자 / 김소연
 전임연주자 / 장연희 간사 / 김성화

가브리엘 찬양대

대장 / 임복섭 부대장 / 양은식 황진순 총무 / 강호원
 지휘 / 김원섭 반주 / 구자의

소프라노

강영희 고혜련 김누리 김효성 김보미 김보옥 김승희 김정남 김지연 김지혜 김보남 노영희
 문수향 문은희 박 민 박미연 박민정 박정혜 백운일 변영현 석경림 석혜림 송희순 신진영
 신향연 오지현 윤은희 윤지희 이규숙 이희희 이상의 이유미 이은혜 전혜정 정은희 정정희

2007년 일관 평단

조연숙 조인숙 최근준 최영희 최현희 함윤자

알 토

강호민 박기영 김미경 김순실 김슬마니 김아란 김옥남 김은영 김종리 김진화 김향신 노명준
노수옥 박명자 배찬희 박경희 신장석 안숙연 연화숙 오귀훈 윤 회 윤일자 이정진 아바라라 한수미
이보람 이일희 이숙희 이연하 이정은 이희주 장재지 전현미
황진순

대 니

강성희 강준구 강소정 권덕용 권병철 권석태 김강남 김상철 김성진 김희선 박용하 박준업
장영희 양은식 엄복섭 옥인수 이도현 이민형 이상급 이상용 이상훈 이영호 이천주 장남수
최 용 최승민 최승진

베이스

강호민 김 록 김대성 김연군 김일중 김경권 김주현 김장배 노권일 류기석 박대근 박준업
박은기 박은영 박용규 민성철 유동호 윤병석 윤여만 윤은호 윤태원 이동혁 이용재 이현호
이흥우 정금수 정래부 최병일 최효음 한관우

임마누엘 찬양대

대장/입장식 부대장/이기옥 이현진 총무/변인식
지휘/서준성 빈주/오수미

소프라노

강지혜 강재현 고복희 구명숙 권미숙 김강남 김연주 김예숙 김옥자 김경업 김진영 김태급
김현진 김태명 김혜영A 김희숙 김영희 나소영 남윤정 박경자 박신아 박소연 박인미 박현숙
배윤숙 서미선 서혜덕 송순기 신승연 안선희 안은미 안은혜 엄선자 오윤숙 오은경 오현숙
윤남순 윤미영 이 진 이경자 이명순 이미령 이신남 이양현 이연실 이찬주 이춘희 이현자 최 진
이현진 강동경 장성희 장순강 장현진 장정진 장영주 정옥남 정영민 지숙자 채명희 최 진
최정원 최희정 최희진 한금자 정은선 안옥봉 원현정 허종남 홍성미 황영숙 황성희 황순하
황재희 황주희

알 토

고은영 금현숙 김경숙 김경순 김남숙 김미선 김영선 김은영 김혜순 노효영 노희영 류보라
모지선 박상남 박순복 박현숙 박영숙A 박영숙B 박혜정 서명자 송희명 왕은영 유인애 유영연
유성희 유봉선 이영지 이용주 이세숙 이영경 이태영 전은실 정미란 정영희 정은자 진영은
최학림 최희정 최정은 최경원 최희은 추수미 화진희 한 나

대 니

강만식 김기홍 김상진 김승환 김용삼 김경호 김대진 김훈식 박종호 변인식 서정현 신동범
신명식 안준모 유병수 윤상현 이종림 임광식 정동주 조성수 추동환 황석진

베이스

강만수 고석정 김동현 김만국 김명표 김성길 김종세 김종근 김철남 박대근 박명후 백현철
성 중 송동준 신유진 안연식 염은숙 이기옥 이수길 정재호 정봉성 정영태 조인명 최성철

임마누엘 오케스트라

총무/유원주 악장/이예스더 편곡/손윤아

대 니/

김진경 김영숙 김진희 김타경 노은영 박하나 백소연 백혜옥 손윤아 유미경 유원주 이예스더
이종림 이자은 이희영 장신자 정인선 최경진 한정식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박상대 부대장/이세영 금호순 총무/문경안
지휘/강임규 빈주/한경숙

소프라노

강보은 강복희 강지은 강혜정 박영자 구영주 구은옥 김경숙 김명자 김미자 김소연 김소복
김순애 김승희 김경자 김예진 김용미 김용혜 김은희 김경숙 김경원 김종희 김지영 김지혜
김현숙 김경자 김현숙 김영희 민소연 박경희 박귀자 박미라 박시리 박수경 박용희
박순복 박은희 김현희 박경자 박진희 서미선 서경숙 손성분 손순아 송정숙 신명희 신성미
심금숙 심진숙 양영애 양혜영 양효진 오현정 우수영 유영아 윤 회 윤효순 이은미 이명화
이미선 이복희 이분남 이송이 이수진 이숙연 이송희 이영희 이은주 이영희 이혜숙
이혜정 임윤숙 장영진 장혜진 장정희 장현주 조미령 조옥재 조정은 조현수 최현수
채은실 최희희 최희미 최선명 최영숙 태두수 한홍록 함희정 홍예경 홍은혜 최희혜 권세연

알 토

강경순 강지희 박수진 박은영 권예스더 금호순 김경애 김장배 김성옥 김성자 김성희 김순임
김연향 김영임 김영주 김영희 김은주 김지선 김자은 김한진 민순기 박경연 박선영 박영순
박영희 박지경 박현숙 박애순 손경희 신진숙 심장숙 신영진 안현희 염기자 오순옥 오세은
오정선 유경희 유성희 유재민 이경민 이상향 이연숙 이연희 이영희 이은순 이혜정 이희자
임금순 장진숙 장은숙 장미애 장윤진 장정숙 정현애 조소미 주윤숙 차복순 최양숙 최은영
최수영 한수백 한신애 황은선 김동녀 배정희

대 니

강재구 김광진 김기중 김경조 김홍원 노은영 문경안 박성근 배태경 송영삼 양순환 여영호
윤병현 윤숙민 이경환 이광국 이성희 이세영 이숙국 이영남 이인원 이정덕 이종용 이주승
이진국 이창영 이혁진 임연수 장성길 전복주 전순기 정연순 주용규 최규옥 최민석 최세진

최일준 함형준 임종연 박상대

베이스

구창희 권영주 권하연 김광일 김병수 김상열 김성국 김영희 김재범 김종식 김종준 김태진
박경문 박연호 박진관 박진희 신명환 손정익 송용광 신장철 심재순 오성덕 유재훈 유종국
윤훈중 이상열 이남일 이복기 이상범 이상범 이시영 이흥기 이창민 이창민 이창민
조윤준 최유근 최홍순 최희원 표창원 현준봉

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총무/ 최영옥 악장/ 김유정 편곡/ 김영아

대 니/

김유정 김영아 김영미 김영아 김유정 김형준 김해진 민선기 박 민 박성운 박솔기 배준영
송현정 윤솔기 윤순호 오미자 이경림 이흥주 이신희 이신림 이윤희 이윤희 이윤희 이윤희
조성훈 조은진 조이정 최두루 최영옥 홍성관 황윤희

아멘 찬양대

대장/박용규 부대장/김옥근 정상화 총무/황경석
지휘/김원섭 빈주/김윤경

소프라노

강신순 권혜은 김경자 김명진 김선희 김성자A 김성자B 김순자 김재자 김영숙 김영희 김윤미
김은지 김경순 김경옥 김혜숙 남유숙 남혜숙 류명희 명선덕 박재연 박관남 박은숙 박진선
박혜순 박용란 박희수 서유연 신명주 신수정 신순자 심일남 심재선 안복남 안관주 안희경
알해은 왕인숙 우영희 원용숙 유기진 유미경 유영자 이경순 이금자 이명희 이영순 이옥순
이정국 아순애 이현숙 이혜숙 임광숙 임명희 임선아 임영애 임학진 장은희 장혜남 전경자 이옥순
전덕만 전옥순A 전옥순B 정금숙 정상화 조미혜 조옥민 조지은 전명규 최경숙 최순자 최은희
하애숙 홍성선 홍수경

알 토

강종화 고금진 김명순 김수연 김순옥 김순은 김아진 김영란 김영옥 김영옥 김유자 김윤희
김은숙 김은자 김인덕 김인숙 김경란 김경순 김경자 김진희 김현미 김현수 민병관 박경숙
박은희 박대만 방소애 백난희 백숙자 변정자 서경애 안금자 양미정 엄정자 오영하 유선덕
윤성희 이덕진 이명자 이순자 이예숙 이연숙 이영희 이영희 이진모 이희자 임정희
임대수 임원숙 장순태 장영연 권유경 권은순 정명실 정은실 조준호 조태숙 진명화 최수자
최정옥 한예연 한정화 허미자 홍종숙 홍현주 황은선

대 니

구병식 김 결 김낙홍 김문섭 김민술 김기명 문석근 문승길 신재식 안성국 위규호 이봉주
이상경 이신남 장상길 전진규 정국용 정기성 정은준 정완용 조경민 최계철 최용익 한송열
한현식 함흥기

베이스

고종현 김경환 김석동 김신국 김옥근 김요셉 김문섭 김준희 김준광 김현철 김창진 박문선
박병선 박학근 박희성 송순호 신동수 유진호 이부성 이석재A 이석재B 이승기 이은주 이태원 이정태
이지은 이창우 이창호 임두옥 임태선 정재용 정우성 조시배 조희용 최광원 한재순 황경석

아멘 오케스트라

총무/이진 악장/장연희 편곡/정국용

대 니/

장연희 강재현 송현정 임지희 이예스더 김영숙 양명희 최하나 김성희 순경원 이진 왕은영
김해경 김수강 박성운 윤순호 정국용

번갈 찬양대

대장/양기수 부대장/지규성 이순기 총무/최희은
지휘/강임규 빈주/최진정

소프라노

강민희 강하나 강현지 기윤영 김민우 김보름 김진정 김수연 김수현 김아영 김연선 김예진
김현숙 김용정 김은경 김경원 김자선 김지희A 김지희B 김진희 김현정 김희연 박소연 박혜정
박은영 박은진 양하은 염혜실 유보영 이송미 이은주 이태원 이태원 이태원
전수진 전수현 정혜미 조은영 조이아 조혜인 지은진 최유경 최지성 추희은 한지연 홍성은

알 토

한태림 김명희 김정은 김소담 김소과 김소연 김수정 김아름 김은규 김하나 나지희 박경은
신누리 이고은 이보람 이수연 이우미 이영민 이정은 이하경 이혜정 임조희 조희희 최세은
최은규 최지성 최지연 한다정 현솔기

대 니

강재구 고홍철 권현우 권선재 김현우 박상문 박상근 서동혁 오상원 오창원 이병진 이정덕
이정현 이호준 장진호 정승환 조성환 한태범

베이스

강진희 권도형 김동식 김용성 박경훈 김세숙 심재현 오성덕 오 현 윤용성 이봉호 이준원
이태우 이상훈 이슬기 이영현 이지훈 이태원 이효근 지상혁 최원우 최형원 황정연

번갈 오케스트라

2007년 일꾼 명단

총무 / 이원석

대원 / 권박민 김은지 김지호 김진평 김형준 문선영 백민지 박선옥 박지연 서단비 유마나 유미영 윤슬기 이다형 이서은 이원석 이영훈 이정림 이주은 이현민 정해진 최두루 한정석 황지현

예배 찬양대

대장 / 김구형 부대장 / 채홍표 김경희 총무 / 이미애
지휘 / 구자은 반주 / 오민선

소프라노

강부희 김나영 김성혜 김연희 김예린 김용은 박소연 변해연 오유연 유민선 윤수정 윤혜리
이나연 이은미 이은혜 이진향 장지혜 정지혜

알토

임예은 유미영 이다영 전숙현 정지현

테너

강진옥 김대혁 문지훈 박종명 변재승 유재우 이승훈 이주원 이조안 정문원 정민형 조현옥 최환민

베이스

고근석 김도빈 김성진 김지수 박성수 서기욱 안형근 이영한 이은기 이현준 정준영 최민형
현진희 황기수

예배 오케스트라

총무 / 이미애 악장 / 유승희 편곡 / 정영근

대원 /

김다영 김명희 김재지 박다솜 박민지 백민아 신하영 신혜정 예지희 오다현 윤지수 이찬미
임지희 김혜인 황하진

호산나 찬양대

대장 / 이화자 부대장 / 박인자 총무 / 박복숙
지휘 / 이승순 반주 / 김신영

소프라노

강순희 강준자 고윤희 권미숙 김경숙 김성아 김성자 김숙자 김연수 김제명 남영순 라병순
박숙자 박영자 박인자 박희숙 방진자 백경숙 박순자 백영희 서영남 성명선 성순옥 송영복
이정애 신영희 안경덕 안정희 안혜영 양신자 양신자 우병희 유영자 윤준심 이군자 이미경
최경순 최숙경 최정자 한순옥 함자옥 허인순 정찬실 정찬실 정찬주 조연이 조영자 조종선

메조소프라노

김순은 김명혜 김옥남 김지현 김효자 문성애 박복숙 박순옥 박신자 박숙자 양숙자 염숙현
오정희 유숙상 윤순 이영숙 이인숙 이향선 임남진 조용기 조은진 최막정 채재선 원경남
홍명희

알토

고정순 고순태 구영희 금호순 김경자 김금숙 김봉숙 김영자 김명희 김외숙 김희수 백영자
신소자 신장순 안정자 이규숙 이수자 이영영 이형주 장명숙 전진실 최하자

실로암 찬양대

대장 / 이재인 부대장 / 권영주 이숙희 총무 / 장정옥
지휘 / 서운성 반주 / 채은일

소프라노

강여경 강영미 권민씨 김동주 김명화 김진자 김소연 김은미 김은실 김점태 김정연 김춘자
문은희 박가자 박남애 박성순 박정애 백영희 성경옥 손영숙 송선숙 안종남 오명옥 오영자
오은정 이숙덕 이슬이 이수진 이숙희 이주자 이경기 이경애 이주영 임순복 전수현 정순옥
조미경 조진경 최영민 최종관

알토

강정순 강선아 권노경 김미심 김영은 김종녀 김형숙 박성희 백지원 송희명 유애린 이성희
이숙희 이은희 이재숙 임금순 현영준

테너

고광환 김원섭 김희환 양태선 유성택 윤석민 이경준 이상주 이세영 이윤진 이재영 이정환
이광수 이희식 임창식 임현덕 장영욱 조문수 주용규 최상기

베이스

강명규 강인규 강호원 권영주 김진국 김준희 김철규 나광영 류병희 박홍규 송영준 안찬덕
안치원 양재용 이국근 오순도 유재진 유현철 유수일 이계인 이상진 이종태 이흥우 임우도
장 훈 전성원 정진호 정종순 최성규 최유준 최종철 허종철 허만선 황진섭

핸드벨 연주대

대장 / 김승옥 총무 / 안철희 지휘 / 송재일

대원

공예령 공예린 공진규 김내인 김선영 김진주 김성혜 김명림 김명태 김우진 김유림 김유옥
김내인 김재훈 김 준 김지은 노주원 노예린 문주영 문하영 박미연 박정혁 박지은 박지현
손소희 여성민 유미경 윤지현 이가현 이나리 이서현 이상진 이요한 이종형 이지연 이재원
이한봄 이한솔 이현주 정준성 정태성 정현종 조하은 차병석 차병철 차병진

만도린 연주대

대장 / 최근준 부대장 / 김연향 총무 / 박귀숙
지휘 / 이승순 편곡 / 김지은

대원 /

장태연 박숙단 광영자 구영희 김경숙 김명선 김미연 김선진 김숙자 김순배 김순옥 김연향
김옥기 김진주 김창옥 남준자 노순옥 명혜영 박귀숙 방정혜 변순복 서성미 서인희 신혜옥
심일남 안분조 안신자 오명자 유영자 유병수 유영순 이경록 이소혜 이명희 이연순 이연희
이영순 이영자 이경애 이경희 정순경 최희경 최근민 최근관 수순옥 한영숙 함영민 허인순
홍예경 홍희숙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 / 조종환 지 도 / 이재영
서 기 / 이달옥 회 계 / 박상대

영아부

부장 / 이달옥 지 도 / 이옥주
부감 / 김성호 이상옥 총무처장 / 우종호 교무처장 / 백재홍 생지처장 / 이미나

남교사

백재홍 우종호 이병노 최민우

여교사

강 소 강석분 권경애 고희란 김경숙 김경아 김신애 김영란 김영자 김재순 김정희 박미경
박선영 박효순 손준원 안순복 안경희 이규숙 이미나 이혜경 임영환 장선자 정금자 허국현
홍은기 황현주

유아부

부장 / 유상태 지 도 / 이복순B
부감 / 박명호 김희선 총무처장 / 구성희 교무처장 / 이창희 생지처장 / 이명희

남교사

구성희 이봉호 이창희 이한봄 이호식 임민섭 조용민 자성광 최재호

여교사

김명경 강소영 고혜련 권미리숙 권진숙 김광미 김경성 김예순 김은규 김경원 박미향 박혜경
안정숙 엄지용 이명희 노재희 문자현 민병옥 박건영 박명란 박미숙 석혜림 손혜경 신혜리
정다애 조혜인 최광란 한다경 한지연 황규리

유치부

부장 / 김태식 지 도 / 김정연
부감 / 이상태 손유비 총무처장 / 유형근 교무처장 / 최영인 생지처장 / 김형옥

남교사

김성주 김정일 박준홍 유형근 이윤현 최영인

여교사

김금숙 김주리 김두연 김명은 김소희 김수리 김수현 김영옥 김옥희 김정화 김지선
김한나 김현경 김형옥 노재희 문자현 민병옥 박건영 박명란 박미숙 석혜림 손혜경 신혜리
안정숙 안유리 안지영 안지연 유옥주 윤선주 이경진 이민복 이선화 이윤경 이경애 이혜숙
이혜선 이홍자 전금수 정혜리 조옥연 조인혜 정지연 최금진 최미정 최애순

유년부

부장 / 김창국 지 도 / 강명규
부감 / 김홍기 남준자 총무처장 / 허만선 교무처장 / 신태홍 생지처장 / 박찬서

남교사

김명철 김진희 박병철 박찬서 신태홍 유석민 이재학 정재홍 허만선 황윤옥

여교사

김내인 김명희 김수연 김영은 김은경 김희룡 남미선 서희자 안정숙 유수진 윤지영 이기연
이명순 이명태 이미경 이미숙 이소희 이영주 이용표 이희분 이희숙 임은미 임종현 장명숙
장세복 전영선 정윤주 정지현 정효선 최창자 허민성 홍기숙

초등부

부장 / 송두섭 지 도 / 유현철
부감 / 박광식 김하경 총무처장 / 이상경 교무처장 / 최동삼 생지처장 / 장지관

남교사

김영문 문봉만 박옥석 이규환 이상경 이정재 장지관 최동삼 황세연

여교사

2007년 일교 평단

강유옥 강지영 박호아 기윤영 기하경 김경남 김광선 김순곤 김슬미니 김신영 김장이 김지현
김진선 남영숙 박경희 박연미 박연숙 박지영 박효선 박수현 서미미 송영복 신신경 신화희
안정민 엄유선 오미라 오준분 오운호 유준남 윤경희 이경화 이교숙 이정현 이지연 이혜숙
황유진 최호정 최성현 최옥숙 최지숙 황효선

소년부

부장 / 장승규 지도 / 유성택
부감 / 예정호 김순임 총무처장 / 김광미 교무처장 / 조운성 생지처장 / 김영목

남교사 김학진 김동식 김영목 문원준 박상직 오종학 윤상규 장동수 조운성 조인영 최낙은 한병구

여교사 강여경 김광미 김순곤 김보옥 김수인 김언정 김유경 김경화 김태영 도승애 문현정 박신향

박혜경 박혜연 신동미 신영희 오남규 오경희 이명애 이미화 이선영 이인숙 임나연 정영분

정정진 정영자 정혜영 주명순 최유경 최유혜 황하늘 허은혜

중등1부

부장 / 전은배 지도 / 양태선
부감 / 이보신 윤숙희
총무처장 / 이정진 교무처장 / 홍금성 생지처장 / 김기태 양한원

남교사 김기태 김아름 김영준 김일생 김동식 김진석 노규식 송상배 양한원 오승민 이나흠 이신홍

이윤복 이정진 조덕영 지상훈 하상원 홍금성

여교사 강유정 강혜경 고혜영 김경은 김명숙 김순화 김진혜 김경은 김지혜 김지희 류홍희 박유미

부경민 오영선 오영자 이명주 이미현 이선홍 이원정 이용순 이정은 임유진 임지선 장경애

정혜라 추민경 현연선 현연숙

중등2부

부장 / 장장수 지도 / 전성원
부감 / 박용기 김남희
총무처장 / 김희동 교무처장 / 장기락 생지처장 / 한홍연 윤병식

남교사 강신철 고혁준 박홍은 권혁원 김명준 김희동 문운수 박성호 박준규 배종탁 위홍철 윤병식

윤병일 이상호 이주영 임병익 임병준 경기락 정준성 정진곤 조준현 최병일 한홍연 황경옥

홍기춘 홍종현

여교사 고진숙 김달수 김선영 김진선 김정은 김혜진 라은원 박경진 박애선 박현숙 성명선 손인순

유미나 이명연 이선화 이은경 이은미 이정연 이하경 전혜상 전혜선 정주연 최난희 최민정

홍경화

중등3부

부장 / 장철환 지도 / 이재영
부감 / 박석산 한 숙 총무처장 / 이병두 교무처장 / 박종률 생지처장 / 윤민재

남교사 강석희 강영모 김요한 김재경 김종훈 김진갑 박성호 박종율 박판수 오임식 유병규 윤민재

윤용성 이기진 이병두 이종훈 이준희 임지혁 정일택 지석현 하경수

여교사 강경남 강선영 강영자 권선애 김영희 김옥진 김지은 방미애 서은숙 성유경 손명희 신현원

오민경 유명숙 윤지영 이송미 이영숙 이지연 조선희 조유진 허다영 홍경호

초중도서실

부장 / 박영식 부감 / 김종훈 함화자

남교사 박정환 임병익 이정생 장진호 전경원

여교사 김범은 박신향 박은화 송정희 이은정 정영자

제2교육위원회

위원장 / 정선현 지 도 / 이창수
서 기 / 양기수 회 계 / 이상석

고등부

부장 / 김구형 지도 / 이창수
부감 / 채홍표 김경희 부교역자 / 전영희 양희옥
총무처장 / 김영환 교무처장 / 이상선 생지처장 / 이동훈

남교사 강문구 박현우 공명우 김영환 김우정 김재현 김형기 박승준 박승산 백성민 서상근 신병식
양현규 염주현 오찬양 유 철 이종준 이복희 이상구 이승기 이양선 이준환 이한호 임대혁
장인희 장영진 장명근 조영진 조운진 채홍표

여교사 장신애 구영자 구자은 김경미 김선아 김숙자 김창옥 김화실 마라나 마현미 박경희 박보람
박정윤 박지수 박현순 성철요 손은희 송진경 안분조 오민선 황남희 황현정 유승희 이다정
이미애 이보담 이연희 이우주 이은총 이지윤 임태영 전혜경 정성미 정옥선 조상미 조영주
채자연 최은경 한유리 홍정애

대학부

부장 / 양기수 지도 / 정진호
부감 / 지규성 금옥연 부지도 / 류진희 간사 / 한정우

남교사 김민중 이민형 여교사 공성연 이연희

청년부

부장 / 이상석 지도 / 김철규
부감 / 김진옥 이순기 부지도 / 이혜숙

남교사 조종민 여교사 장 옥

청년2부

부장 / 구재환 지도 / 이용진
부감 / 전진국 김정숙 부지도 / 한성임

남교사 김정권 이향진 차미선 최재필 최창하

조강은미 권현주 김순환 김경진 김창용 김형호 박병욱 변성주 양두원 양의수 오경진 유용열
이상아 이석종 이성복 이수진 이윤경 이진수 이혜경 정영수 정재식 차영원 최경진 최승민
황수미

제3교육위원회

위원장 / 신선길 지 도 / 김익환
서 기 / 이태식 회 계 / 김승곤

장년부

부장 / 이태식 지도 / 김익환
부감 / 장길남 총무처장 / 박진숙 교무처장 / 정대동 생지처장 / 이승득

남교사 강홍선 김경목 김규용 김기홍 김원기 김정구 김형수 문영규 박종윤 박진옥 서수길 성대열
이승득 이용수 이진규 정태동

여교사 김복수 김위자 김태숙 김학선 김형미 노희래 문현옥 박숙경 박태선 박현숙A 박현숙B 배영진
배옥순 송혜숙 윤인순 이강혜 이상옥 이양현 이혜자 이경희 이종영 장재순 정경희A 정경희B
정문태 주은진 진화자 최영애 한금자 황선진

장년2부

부장 / 박덕양 지도 / 이희석
부감 / 권 철 총무처장 / 박종태 교무처장 / 이광국 생지처장 / 오재일

남교사 장만호 강희장 고승관 구원식 김영주 김경태 김현태 남용순 박미련 박성철 박종태 신종식
오제일 이광국 이상남 이호일 임태봉 정금수 정윤환 정재도 조종득 한만교 한만희 현승조

여교사 장길래 고명진 길봉재 김금숙 김부영 김숙자 김영숙 김영혜 김재순 김혜숙 남현숙 박영순
박재일 박차화 박태남 시경희 신소자 여신자 윤옥자 이서륜 이수인 이경남 이현순 임창순
장남희 조숙애 조인숙 조혜선 재인숙 홍정순 황주옥

장년3부

부장 / 노영환 지도 / 임현덕
부감 / 김연태 총무처장 / 박우현 교무처장 / 함용식 생지처장 / 강두형

남교사 강두형 김석재 김영환 김경영 박우현 백종윤 백종현 이동경 이병근 이인광 최경하 최태환
한호철 함용식

여교사 강경희 국인숙 김경순 김진자 김숙자 김연수 김현옥 김정선 김준주 김향자 도수자 문경희
백영자 서화자 신정순 안정자 안종남 오명준 유금열 유기준 유병순 은필재 이연식 이영자
이옥자 정금숙 정성자 정은이 조영숙 조운수 차창순 한영덕 한혜정 허순자

2007년 일관 명단

최용길

진행분과

분과장 / 김진국 차 장 : 김태식 최세진 송한천
 실행위원 /
 고희란 김현진 김영환 노연일 문영규 이상범 이상섭 이정태 이희우 조선휘 한현석

관리분과

분과장 / 김규석 차 장 : 오순도 조문수 김현철
 실행위원 /
 권영주 김성호 김윤희 김재춘 김종배 김중훈 류기명 박광식 박용기 박종율 박종태 배관용
 송희명 오은경 유동호 이선홍 이수자 이순기 이예영 이용수 이윤의 강경록 전종일 지규성
 지영순 한옥태 한홍연 황영림 홍원석

훈련분과

분과장 / 신광철 차 장 : 이상석 동방용운 이신동
 실행위원 /
 강남식 강안호 강장식 권현구 김성연 김정은 김동성 김홍기 박보람 박영섭 박옥현 박유미
 박종태 박호용 백지연 송영준 양한원 유미나 윤병식 이복희 이세영 이주영 이항진 이홍우
 이효근 이종준 장철규 전삼진 전성욱 정영태 정일택 조영구 채종표 최남하 최지성 현준봉
 홍경태 홍성진 홍순길

지원분과

분과장 / 장승규 차 장 : 정태두 최종순 이근호
 실행위원 / 김희선 문연식

의료선교부

부장 / 최민석 차 장 : 안세현 박석산
 실행위원 /
 김기봉 김수경 김윤수 김정희 김재호 김중희 김현도 김형미 김해원 박성철 박은기 신은희
 신진영 안박식 오윤숙 오필선 오희숙 유순원 이사라 이상용 이세영 이유주 이상률 이향남
 전형식 정은미 정인진 조옥래 조한주

외선부

부장 / 오순도
 외선부 간사 / 박경배 배지마 박요엘 필립 나기태 강영기
 외선부보조 / 너임에르네 골로자 우미드 물라 보트르론 다누시
 총무처장 / 김유환 교무처장 / 이영한 생지처장 / 강남석

외선부 실행위원 /

강승호 강진규 구승희 권영진 김달현 김대용 김도희 김석영 김성탁 김순남 김영주 김요한
 김지선 김재현 나영섭 나지현 노수식 문재연 박남주 박모세 박삼성 배남환 백인숙 신교현
 안해진 안순옥 양승복 염해실 유경진 윤보경 윤해근 이남숙 이득혜 이무열 이영우 이정현
 이항선 임원진 장성재 장용숙 전유경 전일열 전종일 정수원 정옥임 정혜선 정해원 조영구
 조인희 조한규 최정일 한수정 한현진 홍성재 홍순길 황정미

선교훈련원 부장 / 차신득

봉사위원회

위원장 / 권명옥 지 도 / 류병희 부지도 / 이종대
 서 기 / 김진국 회 계 / 안석현
 위 원 / 이정우 신상수 함철주 윤석민 구재완

구 제 부

부 장 / 고재승
 실행위원 / 구원섭 정원근 문영규 김을필 오화자 김양자

재난구호봉사대

대 장 / 장승규
 실행위원 / 김연태 이경현 박광식 정호진 유선덕 이영숙 전경금

차량안내부

부 장 / 배춘식 지 도 / 류병희 차 장 / 박철규
 관리처장 / 허명호 총무처장 / 추병창
 서 기 / 김명성 부서기 / 정승진
 회 계 / 박원하 회계 / 공석생

실행위원 / 허명호 추병창 이인광 문희석 박효용 김종홍 김종민 김명성

봉사위원

강인명 윤석생 권복용 권태선 김광진 김재호 김나홍 김명성 김봉중 김영관 김영연 김이경
 김계기 김경태 김종규 김종민 김홍식 김종훈 문희석 민명옥 박기철 박순규 박영기 박원하

박재민 박장식 박형곤 박호용 박승환 신현식 신현옥 엄창근 윤선한 이병근 이성실 이승구
 이우형 이우성 이인광 이재철 이정진 임동재 장동규 전인환 전주상 정계수 정문호 정승진
 정영민 주낙진 최정운 최진성 최홍섭 한용택 한종구 한종남 황익수 황현철

자원봉사부

부 장 / 권명옥 지 도 / 류병희 차 장 / 김연태 이경현
 간 사 / 이인영 부 간 사 / 김양자 오화자
 총 무 / 박광식 부 총 무 / 김을필
 서 기 / 박종율 부 서 기 / 이신필

교구팀

실행위원 /
 구원섭 이영한 유동호 박원하 박옥현 김현근 강천석 박춘근 김종성 김경환 정원근
 이성식 강진택 박종율 이강근 임우도 박규연 김홍기 김진옥

주일자원봉사팀

팀 장 / 이인영
 실행위원 / 장철규 박규연 정영래 오재일 송영준

달란트팀

팀 장 / 이부성
 실행위원 / 문영규 양한원 윤병식 이신동 박옥현 최준호 정영래

기도원, 동산팀

팀 장 / 이인영
 실행위원 / 구원섭 장철규 남용철 허형철 강천석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장 / 당회장
 위 원 / 김은호 노광원 이훈 이종석 진홍용 전홍렬 김단용

기획위원회

기획위원장 / 김환기 지 도 / 임현덕
 서 기 / 윤석민 회 계 / 완용철
 위원 / 이훈 김광남 전홍렬 김영은
 실행위원 / 이호일 문영규 백봉선 김상열 최종순 노은영

교구위원회

위원장 / 전홍렬 지 도 / 류병희
 서 기 / 김중진 회 계 / 고재승
 실행위원 / 한옥배 이수자 신장숙

1 교구

교구장: 김진국 지도: 류병희 부지도: 강호석 남간사: 정인옥 여간사: 이정미 새가족양육부장: 김승구 김점례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국기1	최세진	조연숙	장계수	서해정	김정수	
	국기2	최세진	김은희	장계수	문진희	김영아	
	국기3	최세진	신영자	장계수	정희희	김상희	
02	국기4	이보신	유성자	최규태	이명금		
	국기5	이보신	김국자	최규태	윤효순	김화실	
	국기6	이보신	김국자	최규태	김경숙	이인숙	
03	충현1	최계열	장옥화	장종래	신명주	이정옥	
	충현2	최계열	최은희	장종래	최승자	장자윤	
	충현3	최계열	최은희	장종래	김정순		
04	충현4	최계열	김춘자	장종래	송은화	유익숙	
	목양1	윤선한	강신순	김진석	임문자	이인순	
	목양2	윤선한	강신순	김진석	신동옥	함희정	
05	목양3	윤선한	남경자	김진석	염유진	장명숙	
	목양4	윤선한	안경자	김진석	김승희	이정현	
	언주1	양한원	김희술	정인옥	이정미	이순희	
06	언주2	양한원	강옥련	정인옥	강 옥	김근아	
	언주3	양한원	이윤의	정인옥	곽도경	박경희	
	언주4	양한원	이현선	정인옥	이경순	최종란	
07	역삼1	구원섭	김하순	송현덕	남주옥	신명자	
	역삼2	구원섭	백영자	송현덕	오정례		
	역삼3	이숙희	이숙희	송현덕	김영진	최자영	
08	역삼4	정창원	장진옥	이재관	백인숙	김은자	
	역삼5	정창원	전준옥	이재관	이수진	김현숙	
	상록1	이부성	전준옥	나오연	이희향	이경자	

2007년 입법 행단

	상록2	이부성	이수자	나오현	심호집	손은희			
	상록3	이부성	이순자	나오현	임태수	심인연			
09	한서1	김대용	정복득	전승기	김영만	윤남영 정경숙			
	한서2	김대용	홍정선	전승기	태일희	강종애			
	한서3	김대용	황진선	전승기	이혜경	송미례			
	한서4	김대용	이근덕	전승기	박경희	김영희			
10	태백란1	홍순길	양상순	박순안	강준자	최금중			
	태백란2	홍순길	양상순	박순안	황경호	김용자			
	태백란3	홍순길	최희수	박순안	안분조				
11	태백란4	전상진	김성아	김성탁	오승민	김영희 유 향			
	태백란5	전상진	노경자	김성탁	김점배	양정숙 정연숙			
14	교역자								

2 교구

교구장: 김영달 지도: 김영환 부지도: 김점연 남간사: 이상배 여간사: 윤 순 새가족양육부장: 김동철 주순회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현대1	정운환	안정희	김 광	김성진		
	현대2	정운환	박영숙	김 광	이순민	심민주	
	현양1	정운환	윤정희	김 광	박현숙		
	현양2	정운환	윤 순	김 광	안중남	김미영	
02	청담1	김동철	김영아	이왕진	노희래	정문자	
	청담2	김동철	정명실	이왕진	방영미	차혜숙	
	청담3	김동철	안정자	이왕진	오소희		
	AID	김동철	구자남	이왕진	김영희		
03	삼성1	유병수	심호숙	최한태	이명희		
	삼성2	유병수	이한복	최한태	김영희	오연정	
	삼익	유병수	주순희	최한태	시경희	문 회	
	해청	유병수	김순배	최한태	이명희		
04	선동1	이영환	김상자	이종훈	정순자		
	선동2	이영환	최수자	이종훈	차영신		
	학동1	이영환	전상실	이종훈	김복현	박영미	
	학동2	이영환	박희지	이종훈	김영희	최명희	
05	경북1	전찬용	최현희	이봉주	김유정		
	경북2	전찬용	문인란	이봉주	이재숙	김경순	
	이화1	전찬용	안경덕	이봉주	조태숙	장연순	
	이화2	전찬용	황정희	이봉주	원영자		
	관세청	전찬용	김은숙	이봉주	박명자		
06	양지1	김철남	유복식	오동혁	김경희		
	양지2	김철남	최근준	오동혁	최명희	최근민	
	양지3	김철남	김상순	오동혁	이인심		
	양지4	김철남	김상자	오동혁	강복희	서진희	
	공무원	김철남	유일옥	오동혁	김영자	안정민	
07	논현1	조흥연	장순옥	최원규	김연하		
	논현2	조흥연	곽노희	최원규	윤소남	정화순	
	논현3	조흥연	백영기	최원규	조순남	황명하	
	논현4	조흥연	정복순	최원규	박옥자	김영례	
	논현5	이상해	노순옥	조유성	장정연	최난영	
	논현6	이상해	김순실	조유성	김명순		
	논현7	이상해	김순자	조유성	고금신		
	논현8	이상해	김경자	조유성	이옥자	김미라	
	논현9	이상해	권경자	조유성	김미연		

3 교구

교구장: 안석현 지도: 장 훈 부지도: 이복순 남간사: 이준식 여간사: 구명숙 새가족양육부장: 장성길 남영순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대제1	김옥근	정봉희	김경기	박희수	송희명	
	대제2	김옥근	노보선	황경석	강아경	김기남	
02	대제3	장창수	이득해	이준식	차옥진	김남덕	
	대제4	장창수	김순자	이삼연	한원숙	전우혜정	
	대제5	장창수	김예순	김영연	한경애		
03	삼성	최홍순	김순옥	노수식	이연희	박신향	
	삼성1	최홍순	김순자	황재희	최종란	박경숙	
04	미도1	장기탁	송순자	이정대	이옥경		
	미도2	장기탁	김정림	이정대	주혜연	김숙자	
	선경정수	장기탁	장은희	이정대	정대선	김미정	
05	온마1	김성호	오정림	김기수	이정숙		
	온마2	김성호	이혜경	김세종	신혜영		
	온마3	김성호	이혜경	김세종	신혜영		
	쌍용우성	김성호	한영숙	이도현	한은자	박성자	
	전달래1	박종철	김지현	최명환	김경자	오영하	
	전달래2	박종철	박태순	최명환	김향신	임금숙	
	도곡역출	박종철	황창자	윤광근	장근자		
07	영동1	허만선	정문태	김승환	임현숙	최문정	
	영동2	허만선	이규숙	김승환	김영택	최현숙	
	삼호삼익	허만선	홍은기	신동수	이희희	최삼숙	
08	타워레스	문영규	김명희	권석정	박관숙	김경복	
	대림	문영규	김승옥	권석정	박예연	유은희	

	한신	문영규	박정란	권영도	이정애	유영숙	
09	락기1	박남규	김보옥	이인란	한은숙	이성미 · 이명숙	
	락기2	박남규	김영구	이인란	강연희	이봉선	
	락기3	박남규	김진자	김희동	서수정	김미연	
	동신우성	박남규	정경자	박병덕	남영순		
	도곡정남	박남규	반연숙	박병덕	강순용		
10	개나리1	한원석	성명신	김은심	안화순	임길영	
	개나리2	한원석	성명신	권희원	부경란	박정애	
	개나리3	한원석	김계희	김성진	윤일자		
	개나리4	한원석	김계희	김성진	구명숙	임승남	
	성보	한원석	김재자	김성진	김지은		

4 교구

교구장: 신광철 지도: 여국근 부지도: 임태주 남간사: 이인용 여간사: 오귀봉 새가족양육부장: 안연식 김영은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잠원1	채홍표	전방자	강형규	신관호	이효순	
	잠원2	채홍표	홍희숙	강형규	황영림	박선영	
02	잠원3	장철환	유영순	조한주	마리나	김정옥	
	잠원4	장철환	황주옥	조한주	김하경	이 정	
03	반포1	백종운	안근자	구성희	마현미	유춘남	
	반포2	백종운	김희숙	구성희	김영은	구명남	
04	반포3	이병근	김희숙	강소원	김정옥	이병순	
	반포4	이병근	이현숙	강소원	이미경		
	반포5	이병근	이현숙	강소원	오지현	김경숙	
05	한양	이흥기	이금숙	안유환	이영순	이주영	
	가든1	이흥기	이금숙	안유환	안유영	윤숙자	
	가든2	이흥기	구인숙	안유환	조영란	김정례	
06	미도1	문희숙	이순연	안연식	김신애	박현숙	
	미도2	문희숙	이순연	안연식	홍예자	박정미	
	서래	문희숙	이순연	안연식	박순복	우영숙	
07	방배1	최민식	백순자	박상성	오명자	권순분	
	방배2	최민식	이향선	박상성	김태경	노희희	
08	방배3	유종식	이영영	권준철	김정진	기숙현	
	방배4	유종식	김옥순	권준철	김대옥	김경이	
	방배5	유종식	김옥순	권준철	신혜옥	최영숙	
09	방배6	박우현	최은숙	나승은	안순복	김미영	
	방배7	박우현	최은숙	나승은	안순복	김미영	
10	방배8	이흥우	방용정	정진홍	김혜숙	전혜숙	
	방배9	이흥우	방용정	정진홍	김혜숙	전혜숙	
11	우성	이희우	박미순	신명환	임명희	김미덕	
	무지개	이희우	이창순	신명환	최명금	안도순	
	신대개	이희우	이창순	신명환	남준희	하해인	
12	삼호	류기명	황 향	김순영	원용자	윤정자	
	삼호1	류기명	이영숙	김순영	정순자	김진숙	
	삼호2	류기명	이상옥	김순영	이희주	하지연	
13	삼호3	김진옥	조용기	정주식	강 순	최미룡	
	삼호4	김진옥	조용기	정주식	조연숙	김진숙	
	삼호5	김진옥	이희희	정주식	윤숙자	하연숙	
	삼호6	김진옥	이희희	정주식	강정희	임신영	
14	서초1	권오준	이순숙	유형근	이수연	한성숙	
	서초2	권오준	이순숙	유형근	이수연	한성숙	
	서초3	김종훈	허인숙	박원화	전경애	이명숙	
	서초4	김종훈	허인숙	박원화	주미아	김임순	

5 교구

교구장: 양기수 지도: 허중철 부지도: 이옥주 남간사: 홍선기 여간사: 함윤자 새가족양육부장: 홍애경 공성연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우면진선	최우근	전현선	안상익	서인순	홍성순	
	양재우성	최우근	차 회	안상익	전재숙	박영숙	
02	양재1	최우근	홍애경	안상익	홍애경		
	양재2	임희준	채현선	조상수	방신자	이필재	
	양재3	임희준	성준순	조상수	방신자	김기진	
	양재4	임희준	성준순	조상수	서혜덕	최미현	
03	시영	김유환	함윤자	정봉성	최유혜	임학신	
	포이1	김유환	함윤자	정봉성	김미정	김미정	
	포이2	김유환	김지연	정봉성	권미숙	공성희	
	포이3	김유환	김지연	정봉성	정미희	한옥남	
04	개포현대	백봉선	백영희	김영모	김연희	정연희 · 이정희	
	개포1	백봉선	김 순	김영모	김연희	고숙희	
	개포2	백봉선	이순자	김영모	임복래	박영희	
05	개포3	정대동	유현순	정진근	문성애	김경남	
	개포4	정대동	이연숙	정진근	조영희		
	개포5	전종일	안은숙	황순선	정성임		
	개포6	전종일	김양자	황순선	최유연	임영심	
	개포7	전종일	김양자	황순선	김미리	변인원	
07	우성한신	박종훈	김영혜	홍금성	김선진	송화자	

2007년 일꾼 명단

	개포대지 일원1 일원2 일원3 삼육수부근	박종운 박종운 박종현 박종현 박종현	안정자 김희자 서정자 정원희 함자숙	홍금성 홍금성 최동식 최동식 최동식	강윤옥 이영희 노승연 소금영 유현숙	김혜정 조옥련	
08	수서1 수서2 수서3	박광석 박광석 박광석	이해주 박관수 박관수	박관수 박관수 박관수	이해주 박관수 박관수	김현자 오경숙	조경순

6 교구

교구장: 고계숙 지도: 이희식 부지도: 김말자 남간사: 오준식 여간사: 권연숙 새가족양육부장: 문연식 이명숙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우성1 우성2 신수촌	김영주 황선혜 최경숙	이규경 이규경 이규경	김두순 최숙자 정숙옥	김영숙 김영숙 김영숙		
02	잠본1 잠본2 잠본3	박광석 황선란 황선란	송영상 송영상 송영상	정윤식 정윤식 정윤식	김진미 김진미 김진미		
03	삼전1 삼전2 삼전3	이세영 이세영 이세영	김현민 김현민 김현민	조연이 조연이 조연이	김순자 김순자 김순자		
04	잠실1 잠실2 잠실3	지규성 지규성 지규성	변인식 변인식 변인식	윤숙희 윤숙희 윤숙희	이광선 이광선 이광선		
05	석촌1 석촌2 가락	이병두 이병두 이병두	심금숙 심금숙 심금숙	김영길 김영길 김영길	김유자 김유자 김유자	신순자 신순자 신순자	
06	송파방1 송파방2 송파방3	박석산 박석산 박석산	이순애 이순애 이순애	박석현 박석현 박석현	이희관 이희관 이희관	조옥자 조옥자 조옥자	
07	한양삼성 삼대리 염련송파	송현천 양명옥 양명옥	이연범 이연범 이연범	이영숙 이영숙 이영숙	이영숙 이영숙 이영숙	손성분 손성분 손성분	
08	오금 마천 거여	한용택 한용택 한용택	정호진 정호진 정호진	한종남 한종남 한종남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김영숙 김영숙 김영숙	
09	상아 가락방울 가락우성	안상직 안상직 안상직	이희자 이희자 이희자	이근우 이근우 이근우	이미랑 이미랑 이미랑		
10	회미리1 회미리2 문정	김현철 김현철 김현철	박영옥 박영옥 박영옥	이기봉 이기봉 이기봉	김정숙 김정숙 김정숙	최종미 최숙희 이종심	

7 교구

교구장: 송두심 지도: 임현덕 부지도: 최문실 남간사: 이재호 여간사: 김형숙 새가족양육부장: 남용철 신영희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풍남1 풍남2 풍남3	박용기 박용기 박용기	홍복기 명정옥 박영민	박명호 박명호 박명호	김지선 조인희 강미영	이인순 박형숙 권영남	
02	장미1 장미2 전주	최대환 최대환 최대환	유선덕 김진숙 김진숙	신용환 신용환 신용환	황정미 황정미 황정미	김석영 최춘자 김수연	
03	성내1 성내2 성내3	장길남 장길남 장길남	이규순 이계문 정숙영	임병준 임병준 임병준	이현숙 임남빈 최미자	권학희 김희남	
04	울림1 울림2 둔촌1	장길남 장길남 장길남	장남희 조준옥 황명숙	임병준 임병준 조원일	김명숙 김명숙 김명숙	김예성 김숙희	
05	둔촌2 둔촌3 김동	이기욱 이기욱 이기욱	차명선 조원일 조원일	이금옥 이금옥 이금옥	김종현 김종현 김종현	김종현 김종현 김종현	
06	침하1 침하2 침하3	박영철 박영철 박영철	이종영 이종영 이종영	최동삼 최동삼 최동삼	박재순 박재순 박재순	김재순 김재순 김재순	
07	명일 고덕1 고덕2	윤병식 윤병식 윤병식	이경자 정상화 민병환	이경환 이경환 이경환	서미리 지숙자 지숙자	민순주 최미정 최미정	
08	광주1 광주2 광주3	이인광 이인광 이인광	신영희 신영희 신영희	장병준 장병준 장병준	심복식 김용환 최정현	최진 공윤환 심진희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중곡1 중곡2 중곡3	김혜길 김혜길 김혜길	이소규 왕진숙 박화숙	안노수 안노수 안노수	박수현 황호선 안노수	강정희 이영희	
02	구인1 구인2 구인3	추병창 추병창 추병창	김원배 김원배 김원배	박성남 박성남 박성남	오영선 박은주 신호화	이경자 유용남 김복순	
03	구인4 구인5 구인6	정철식 정철식 정철식	조은선 변정대 변정대	김수남 김수남 김수남	최명숙 최명숙 최명숙		
04	자양1 자양2 자양3	김종홍 김종홍 김종홍	박자화 박자화 박자화	박준배 박준배 박준배	이인숙 오순식 한진수	조복신 조복신 조복신	
05	노유 성수1 성수2	김윤필 김윤필 김윤필	이옥남 김의태 김의태	김의태 김의태 김의태	강은영 김경미 김경미		
06	홍익 백산 마장	박종현 박종현 박종현	김종선 김종선 김종선	박종선 박종선 박종선	김정자 김정자 김정자		
07	황십리 황십리 황십리	전성옥 전성옥 전성옥	박윤석 박윤석 박윤석	박윤석 박윤석 박윤석	이혜경 전옥순 전옥순		
08	금호1 금호2 금호3	남용숙 남용숙 남용숙	한용배 한용배 한용배	김남희 김남희 김남희	최희경 최희경 최희경		
09	옥수1 옥수2 옥수3	이덕규 이덕규 이덕규	최상선 최상선 최상선	정효석 정효석 정효석	이미나 이미나 이미나		

9 교구

교구장: 정승규 지도: 윤수일 부지도: 장영미 남간사: 김상철 여간사: 정옥련 새가족양육부장: 이창희 함희자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용두 정당리 담십리	강희창 강희창 강희창	이희자 이희자 이희자	임태현 임태현 임태현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02	관동 공동 종계	강희창 강희창 강희창	유현숙 변성옥 홍기준	임태현 임태현 임태현	최희숙 최희숙 최희숙	박해경	
03	종계 종계 종계	강희창 강희창 강희창	유현숙 변성옥 홍기준	임태현 임태현 임태현	최희숙 최희숙 최희숙	김희숙	
04	종계 종계 종계	강희창 강희창 강희창	유현숙 변성옥 홍기준	임태현 임태현 임태현	최희숙 최희숙 최희숙	김희숙	
05	종계 종계 종계	강희창 강희창 강희창	유현숙 변성옥 홍기준	임태현 임태현 임태현	최희숙 최희숙 최희숙	김희숙	
06	종계 종계 종계	강희창 강희창 강희창	유현숙 변성옥 홍기준	임태현 임태현 임태현	최희숙 최희숙 최희숙	김희숙	
07	종계 종계 종계	강희창 강희창 강희창	유현숙 변성옥 홍기준	임태현 임태현 임태현	최희숙 최희숙 최희숙	김희숙	
08	종계 종계 종계	강희창 강희창 강희창	유현숙 변성옥 홍기준	임태현 임태현 임태현	최희숙 최희숙 최희숙	김희숙	

10 교구

교구장: 박덕연 지도: 안현리 부지도: 유인숙 남간사: 이양희 여간사: 오광순 새가족양육부장: 이현진 정경희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동두천	김현배	정경희	김종식	조성옥	정효관	

2007년 일본 명단

	포진	김현배	정경희	김충식	박태선
	외장부1	김현배	문경희	김충식	황이지
	외장부2	김현배	이강자	김충식	오광순
	외장부3	김현배	양영자	김충식	유유순
	박학	장영환	장승이	신현록	김수영
	쌍문1	장영환	김진연	신현록	오은경
	쌍문2	장영환	김경순	신현록	임순록
	쌍문3	장영환	이현주	신현록	최지숙
	상계1	김영록	박효순	이양호	황승준
	상계2	김영록	김복수	이양호	김연숙
	상계3	김영록	오명준	이양호	김재순
	상계4	김영록	박예희	이양호	정외숙
	상계5	조영철	박재임	주낙진	정경자
	상계6	조영철	박재임	주낙진	오혜옥
	창동1	조영철	남은희	주낙진	최영애
	창동2	조영철	이현진	주낙진	박재경
	반동	조영철	조옥환	주낙진	김달수
	수유1	김경환	김재순	조승현	주명숙
	수유2	김경환	양순옥	조승현	권영심
	미아1	김경환	함미자	조승현	윤보심
	미아2	김경환	정영배	조승현	김현아
	정릉1	강만호	이규숙	황현철	박정인
	정릉2	강만호	신은소	황현철	신은소
	길음	강만호	김혜숙	황현철	김유배
	돈암1	강만호	은필래	황현철	손영숙
	돈암2	강만호	신금순	황현철	이신남
	동소문	박승민	백숙자	양병철	박순래
	한신	심화민	신인인	양병철	김경숙
	삼신1	심화민	전신덕	양병철	장세복
	삼신2	심화민	서계실	양병철	김귀례
	홍암	노대경	이성욱	이용수	지영순
	경위	노대경	임정찬	이용수	박순옥
	월곡1	노대경	김현자	이용수	김희숙
	월곡2	노대경	김현자	이용수	강석분

11 교구

교구장: 석영식 지도: 안창달 부지도: 김연식 남가사: 김봉화 여가사: 태명자 새기족양육부장: 김영숙 이해영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인원	김종만	소길순	박진희	남숙자		
	오장	김종만	윤신자	박진희	이경자		
	광희	김종만	양명희	박진희	자이연		
02	장충1	김종만	마경자	박진희	박부강		
	장충2	김철환	태명자	박진희	윤수진		
	필동1	김철환	유옥자	박진희	권중희		
03	필동2	김철환	안소현	박진희	김두연		
	필동	김철환	이서름	박진희	임영애		
	신당1	장경수	김순옥	최승철	이선숙	박복순	
04	신당2	장경수	심영미	최승철	조영미		
	신당3	장경수	한정자	최승철	장신자		
	남산타운1	정원근	장순자	김원기	정미자	신정숙	
05	남산타운2	정원근	이예영	김원기	김희영	이예정	
	남산타운3	정원근	권경자	김원기	이서은	황연숙	
	이태원	박호용	조봉자	이선만	배연식		
06	한남	박호용	양영숙	이선만	이미화		
	보광	박호용	전순숙	이선만	표정자		
	청과	박호용	전순숙	이선만	최은숙		
07	후암동산	박성명	문경숙	이선만	최영훈		
	이촌1	박성명	김영숙	이선만	임정숙	신은희	
	이촌2	박성명	이경현	이선만	김세향		
08	이촌3	박성명	장철자	이선만	박명란		
	자하	박찬서	엄정자	양승찬	이연숙	송광주	
	평광	박찬서	윤재신	양승찬	변애진		
09	해와명륜	박찬서	원길자	양승찬	김영자		
	창신	박찬서	신조자	양승찬	최희순		
	송인	박찬서	박숙자	양승찬	정영미		

12 교구

교구장: 함철주 지도: 최성규 부지도: 홍순애 남가사: 이선희 여가사: 이성숙 새기독교양육부장: 유태준 신동민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독립문	조문수	이홍자	남중호	나영실		
	홍은	조문수	안정진	남중호	고희선		
	역촌	조문수	백옥심	남중호	도순애		
	신사	조문수	최승자	남중호	장진영		
02	북아현	김영목	변경희	김영훈	유별자		
	공덕	김영목	권순애	김영훈	심순덕		
	도화	김영목	한애현	김영훈	이선록		
03	서교	최경화	이성강	오무일	배에스터		
	마포	최경화	김정희	오무일			
	강원					이금수	

04	성산 연희 가과 응암 중산	최경하 강창식 강창식 강창식 강창식	윤경희 이달순 박용순 박춘옥 김정자	오무일 이상배 이상배 이상배 이상배	임신자 김경희 백정순 박혜경 성경미
05	행신1 행신2 화정1 화정2 원담	예경호 예정호 예경호 예정호 예경호	최태옥 최태옥 조영혜 조영혜 김재순	최주환 최주환 최주환 최주환 최주환	이순자 서광옥 양경숙 김옥자 양경숙
06	마두 호수 후곡 밤가시 강신	이성철 이성철 이성철 이성철 이성철	이진모 이의철 이지경 정세용 양방자	정세용 정세용 정세용 정세용 정세용	최금실 이신옥 김정화 박복순 김순일
07	문촌 중산 교하 금촌 고양	이양선 이양선 이양선 이양선 이양선	김혜경 박영엽 김영희 김금례 이달분	박찬옥 박찬옥 박찬옥 박찬옥 김인희	김순희 이영순 문현옥 김금례 이옥자
08	갈현1 갈현2 불광	정영태 정영태 정영태	윤옥자 윤옥자 나 희	김인희 김인희 김인희	김태금 차미선 김인숙

13 교구

규구자·저처기 지도·최조처·복지도·이보수·나가사·전 조·여가사·바수희 새기조·유봉자·문은시 바서니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화곡1	권영주	안순자	김종민	이현옥		
	화곡2	권영주	김덕주	김종민	손옥비		
	화곡3	권영주	이옥기	김종민	이영준		
02	신월	권영주	박화숙	김종민	양행자		
	등촌1	강신천	석기수	배관용	이영숙		
	등촌2	강신천	김경자	배관용	김정준		
	염창	강신천	정정금	배관용	전인숙		
	기양	강신천	이영자	배관용	김정엽		
03	방화1	강철규	이춘일	조윤준	이경옥	김예순 조미희	
	방화2	강철규	정영혜	조윤준	정미자		
	김포1	강철규	장옥숙	조윤준	김위자		
	김포2	강철규	양순남	조윤준	신상미		
	김포3	강철규	신정순	조윤준	정희희		
04	정왕	임재복	박성남	김나홍	한승애	오정희	
	심곡	임재복	홍분숙	김나홍	배영순		
	역곡	임재복	김춘지	김나홍	전진영		
	중동	임재복	박숙희	김나홍	손진숙		
	사동	강진택	최영순	김동석	김금숙		
05	원미	강진택	조은희	김동석	송경숙		
	고강	강진택	김은영	김동석	김성애		
	원종	강진택	고명진	김동석	함진옥		
	작전	박말근	임원진	양재곤	노명순		
	계산	박말근	지민숙	양재곤	김영희		
06	산곡	박말근	박영순	양재곤	정금순		
	부평	박말근	은영진	양재곤	박연자		
	가좌	양승복	이경순	서상근	서덕순		
	만수	양승복	이혜수	서상근	김경성		
	구월	양승복	정성자	서상근	함명순		
07	이천	양승복	정수옥	서상근	이정수		

14 교구

교구장·시사승 지도·화지서 부지도·간더필 나가사·이그흥 엄가사·바귀수 새기조야음부자·이서나 하어수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여의도	김영환	오화자	김일생	원경진	임미순	이규자 최현주
	문래	김영환	김춘자	김일생	안소미		
	당산	김영환	이숙희	김일생	한경희		
	안방	김영환	강소희	김일생	유인영		
02	목1	배종락	김영미	강만수	한연숙		이해숙
	목2	배종락	최하자	강만수	박귀숙		
	목3	배종락	김병자	강만수	안희경		
	목4	배종락	아수덕	강만수	이진주		
03	신길	이정택	김경애	공석생	강성자		이애자
	대림1	이정택	박현순	공석생	박현순		
	대림2	이정택	박금식	공석생	전소심		
	구로	이정택	김한숙	공석생	윤나산		
04	신정1	김수연	박광자	이민호	박경희		김희선
	신정2	김수연	이은옥	이민호	김영미		
	고척	김수연	손소자	이민호	이성옥		
	신도림	김수연	홍현희	이민호	김재용		
05	오류	박종용	권필남	이성남	박명희		최순복
	개봉1	박종용	이경애	이성남	송혜숙		

2007년 일꾼 명단

07	화성	이상범	박남분	김열환	이행숙	
	오산	이상범	박신준	김열환	임종숙	
	평택안성	이상범	윤정미	김열환	김수진	
	천안	이상범	김주분	김열환	김주분	
08	안산1	김재호	최정자	정승진	최정자	고옥순
	안산2	김재호	김옥희	정승진	성경옥	
	안산3	김재호	손은래	정승진	이명순	김준자
	안산4	김재호	백태숙	정승진	최은심	

17 교구

15 표구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태평	조중광	김지선	배만수	최성자		
	신흥주공	조중광	최병초	배만수	김영주		
	신흥	조중광	조옥주	배만수	허정숙	박현숙	
	은평	조중광	고효영	배만수	고옥영		이미정
	성남	조중광	최왕숙	배만수	임창순		
02	상하대원	유재훈	전병희	김재경	이만순		
	장미	유재훈	김미자	김재경	황근호	김정순	김해진
	경남	유재훈	최낙희	김재경	강옥희		
	매화	유재훈	정문애	김재경	정순혜	최성자	
03	이매1	이호일	장신자	김종현	최경숙		
	이매2	이호일	김진수	김종현	우영희	전미리	
04	서현	이호일	송영복	김종현	봉정숙		
	아름1	박규연	김정원	박노익	박재경	정은자	
	아름2	박규연	김영순	박노익	최파진		
05	아름3	박규연	김현수	박노익	이순옥	양혜영	
	효자	김만중	나순희	배현수	김순자		
	장안	김만중	이옥순	배만수	신재선		
06	새빛	김만중	장정숙	배현수	이정숙		
	수내	김만중	최영희	배현수	성진오	이미영	
	양지	한홍연	신진숙	한관우	현명희		
	정든	한홍연	배은경	한관우	윤영아		
	정자1	한홍연	안숙자	한관우	조혜경	신서운	
07	정자2	한홍연	이정숙	한관우	김순이	최호삼	
	정자3	한홍연	박철순	한관우	김광해		
	청송	현송조	곽기영	최용익	한관우	곽진희	
	까치	현송조	유기순	최용익	양은혜		
	하얀	현송조	김영남	최용익	맹신덕		
	구미	현송조	안숙자	최용익	장보윤		
	무지개	현송조	김숙자	최용익	김영희		

18 교구

교구장: 임문채 지도: 정춘시 부지도: 적은희 남가사: 이기술 여가사: 유정서 새기초양육부장: 김종년 김오하

지역	구역	지역장	부지역장	남구역장	구역장	집사	권찰
01	죽전1	정운출	남정애	조성훈	지정민		
	죽전2	정운출	고훈대	조성훈	김경순		
	죽전3	정운출	양승자	조성훈	김종란		
02	꽃매1	정운출	장명숙	조성훈	이순자		
	꽃매2	정운출	이상희	조성훈	남명숙		
	동아	김홍기	강정희	강태영	채은실		
	연남1	김홍기	최영자	강태영	이연하		
	연남2	김홍기	유호순	강태영	전병식		
03	연남3	김홍기	한영덕	강태영	최선자		
	마북1	김홍기	차장숙	강태영	김신영		
	마북2	한만교	정혜진	이광현	양승자		
	연원1	한만교	방소애	이광현	하혜수	김옥자	
04	연원2	한만교	전경금	이광현	박근란		
	녹원	한만교	최영득	이광현	김원화		
	동백1	신중식	최시수	이인원	고미숙		
	동백2	신중식	한정희	이인원	남우순		
	보라	신중식	김정숙	이인원	이성희		
05	영덕	신중식	김금순	이인원	안정숙		
	신갈1	김원호	왕인주	여영호	오계순	최정순	
	신갈2	김원호	전유강	여영호	이영주		
	구간	김원호	윤춘심	여영호	박경애		
	용인1	김원호	박숙경	여영호	서지화		
06	용인2	김원호	염경자	여영호	심정숙		
	동천	이달옥	변옥희	김홍식	주은숙		
	수저1	이달옥	정경희	김홍식	선우성운		
	수저2	이달옥	홍현기	김홍식	조옥례		
07	진산	이달옥	정현자	김홍식	홍경호		
	송화1	박재현	고경숙	강두형	홍명도		
	송화2	박재현	신옥자	강두형	이윤정		
	만현1	박재현	강영자	강두형	박혜정		
08	만현2	박재현	하민자	강두형	박경숙		
	만현3	박재현	유재춘	강두형	박숙엽		
	신정1	정금수	이인숙	최재윤	최영순	김상희	

2007년 일꾼 행단

	신정2	정금수	박영자	김재윤	왕순화	
	신봉1	정금수	김봉숙	김재윤	김유순	김용열
	신봉2	정금수	김정순	김재윤	함명연	
	신봉3	정금수	허순자	김재윤	남계순	
09	금호1	이용현	최 규	김상권	구영희	라순진
	금호2	이용현	김필숙	김상권	임정희	
	성북1	이용현	김희숙	김상권	최성남	
	성북2	이용현	조혜순	김상권	한해정	
	성북3	이용현	김금숙	김상권	허미자	

19 교구

교구장:	정선현	지도:	정진호	부지도:	전영희	류진희	이혜숙	남간사:	이동혁	여간사:	남미란
지역	구 역	지역장	부지역장								
01	중고동부	김구형	채홍표·김경희								
02	대학부	양기수									
03	청년부	이상석									

행정위원회

행정위원장 / 진홍용	서 기 / 최지윤	회 계 / 김중선
지도원감 / 김종구	지도원관리부장 / 이실호	
통신부장 / 김영수	시설연선부장 / 최지윤	
위 원 / 노광현 이 훈 노영한 신선길		
주간총현 지도 / 양재용		
교재연구 지도 / 양재용	부지도 / 유재진 이용진	
〈교육훈련원〉		
교육1부장 / 조종환	지 도 / 양재용	
교육2부장 / 정선현		
교육3부장 / 신선길		

재정위원회

위원장 / 김광남	서 기 / 김은철	회 계 / 전계식
위 원 / 노광현 진홍용 최운덕 고재승 장철환 유상태		
실행위원 /		
김영록 안상직 최상기 김진옥 양효민 이민호 김종민 김충식 서진원 이상배 정찬용		
최계열 최영민 김병희 김순련 박복순 백영기 유현순 이숙희 이혜자 진옥순 김동희		
김영권 김향태 신동수 유 철 이연범 이영식 최인규 김경희 김정순 박순례 신화숙		
오명자 유춘남 윤숙상 이금자 이미광 임경순 지아연		

건축위원회

위원장 / 김연근	서 기 / 전은배	회 계 / 송두섭
위 원 / 최지윤 신상수 김중선 김신국 양기수		
실행위원 /		
황윤성 변영민 김 광 예정호 윤병식 김성수 최준호 류기명 박옥현 장철규 최계열		

감사위원회

위원장 / 박홍규	서 기 / 김승곤	회 계 / 진학래
위 원 / 최무길 안동현 박덕양 임창식		
경상부감사 / 박홍규		
실행위원 / 지규성 장철환 유동호 진원식 정종철 최현구 이도현		

법인운영위원회

위원장 / 당회장	부위원장 / 노광현
위 원 / 이 훈 진홍용 김연근 장승규 신선길 김규석	

총현장학회

회 장 / 당회장	
부회장 / 김광남	지 도 / 정진호
위 원 / 노광현 진홍용 김구형 박홍규 김규석 이상석 양기수	

제직회

회 장 / 당회장	
서 기 / 김진옥	부서기 / 이부성 장철환 이세영

집사회

회 장 / 김연태	부회장 / 박광식	지 도 / 정현민
-----------	-----------	-----------

권사회

회 장 / 이정현	지 도 / 류병희	
서 기 / 김영숙	부서기 / 김애자	
회 계 / 조용기	부서기 / 전성실	
지회	회장	해당교구
1지회	정호진	(1, 6, 10, 13, 14)
2지회	유선덕	(2, 7, 11, 15)
3지회	이영숙	(3, 5, 8, 9, 12)
4지회	전경금	(4, 16, 17, 18)

노회총대

노회총대 / 노광현 이 훈 진홍용

총현교회 유지재단

이 사 장 / 김성관
이 사 / 노광현 차신득 김광남 이종석 진홍용
감 사 / 원용철

재단법인 총현동산

이 사 장 / 김성관
이 사 / 노광현 이 훈 김종구 진홍용 김영수 최지윤 정철길 신상수
감 사 / 전홍렬 박홍규

사회복지법인 총현복지재단

이 사 장 / 노광현
삼임이사 / 진홍용
이 사 / 김성관 이 훈 김광남 전홍렬 김단용 조종환 안석현 신선길
감 사 / 노영한 정선현

양로원설립 추진위원회

위 원 장 / 노광현
위 원 / 이 훈 이종석 진홍용 전홍렬 김단용 권명옥 조종환
정선현 안석현 신선길
실행위원 / 지규성 이세영 최민석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사 30:4)

† 순수함을 달아 드리는 감사의 올림!

- ♥ 맛있는 과일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쁘게 예배하고 싶어요.
문예원(유아부)
- ♥ 좋은 선생님 주셔서 감사해요. 열대 5반 친구들과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말씀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다예(유치부)
- ♥ 예수님! 예수님께서 매일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감사하는 희대가 될까요. 이희태(유년부)

† 성탄절에는 친구와 함께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식사 때마다 드리는 기도예요. 맛있는 음식을 주시니 감사하고 맛있는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먹고 또 한 해를 건강하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예수님 땀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저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제가 사랑하는 친구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 친구를 위해 제가 전도할 수 있게 용기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세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에 친구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 드리며 찬양 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서연(초등부)

† 감사!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교회로 다니게 하시고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족들도 건강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태어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도 잘 지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상인으로 태어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 한국 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진(중등 2부)

† 지옥에 갈 저를 천국으로

주님께서 따뜻한 햇빛과 마실 수 있는 물과 숨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느 때보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음식이 없어서 끼니를 굶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장 감사한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뜨거운 불에 휩싸여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저도 그 감사를 항상 간직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하겠습니다.

강희영(소년부)

†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사람 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일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쉴 수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부와 명예를 바라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마침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큰 소리치고 절난 척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처럼 참 믿음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한 숨 더 자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주님을 전하기보다는 나를 욕하고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도와 주어야 할 사람을 보아도 못 본 체하고 싶을 때,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붙들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시때때로 주님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세상과 더 친해져 있는 저를 볼 때 주님께 너무 죄송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처럼 언제나 예수님께만 붙들려 있는 그런 우연이가 되게 해 주시고,
예수님께 붙들려 있음을 감사하게 도와 주세요. 아멘.

조우빈(중등 1부)

† 내가 널 사랑한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 아시죠? 이렇게 여쭙 보면 서운하시리나? 죄송해요. 맞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복중에 짓기 전부터 널 안다”라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그러나 제가 못 나가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못 느끼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주님은 가슴을 치시며 통곡하고 계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가끔 주님이 그렇게 울고 계시는 게 느껴질 때 얼마나 속상하고 아픈지 몰라요.

음~ 근데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면 서로를 생각하며 흘릴 눈물도 없을 테니까요. 이 찬양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 하네.” 여기서 바다는 날 위해 흘린 눈물이지요? 근데 제가 주님 생각하면서 지금껏 흘린 눈물은, 주님이 얼마나 작은 애정 표현에 금방 눈물을 감추시고 활짝 웃으시는지 잘 알고 있는데 늘 못게 해드리지 못 하네요.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음성에 고개 돌려 눈빛 한 번만 마주쳐도, 잡아 주시는 손 뿌리치지만 않아도 예수님은 항상 웃고 계시는 텐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제 마음이라는 것도 알아요. 10시간의 봉사 시간이 아니라, 외식하는 기도 20시간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는 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셨을 때 진실으로 가슴 아파하며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주님을 못게 만든다는 거. “내 진정 소원은 내 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진정 소원일까요? 그건요.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기 힘든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루어지지 힘들지만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소원이잖아요. 참 가슴 아픈 찬양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소원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주님을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다”(잠 3:18). 진정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홍수빈(고등부)

무명의 상도가 보낸 편지

김성관 목사님께

예배 때마다 온 힘과 정성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차를 운전하며,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계속 듣다 보면 지희에게 쏟아 놓아 주시려는 절절한 말씀에 전율을 느낍니다. 때로는 "목사님! 너무 맛있는 말씀이에요"라고 혼자서 소리치고 너무 좋아서 박수를 치고, "맛있어요!"하며 핸들을 두드려 대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따스한지,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말씀인지요! 몸부림하시는 내면의 응성을 듣고 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십자가의 순수한 말씀! 아무리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없없이 그럽고, 달고, 맛있습니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내가 죄인입니다. 사람에게에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눈물의 호소의 기도를 올리세요. 기도는 무릎 꿇는 겸손과 경배이며, 헌신입니다!"라는 말씀 앞에 식혀내던 눈물이 솟구쳐 버립니다. 저의 내면에 깊이 박혀 자기 부인이 안되는 무할레의 육체! 바리새인 같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신뢰하는 육신, 윤리, 자존감, 인격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자기의(自己義)로 결정체를 이룬 교만의 끈 뿌리! 부자 청년 관원처럼 비어내지 못하는 연약함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목사님께서 가슴 절절히, 안타까워하시며 외치시는 말씀이건만 늘 고개를 들고 다시 살아나곤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절규하십니다. 그럼에도 위로가 되는 것은 "그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하라"고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의 따스한 위로가 다시 눈물이 되어 버리곤 합니다. 가슴 저미는 회개와 눈물 적시며 만난 십자가! 신비이고 은총이 없기에 제 삶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맙고 감사 올립니다. 제 영혼이 진정 깨어져 통곡하며 주님께 경배 드리고 싶은 간절함입니다.

"십자가는 은총입니다. 삶의 모든 답입니다. 진짜입니다."

김성관 목사님! 건강하시고, 강건하십시오. 귀하고 아름다운 십자가 보혈, 은혜의 말씀! 늘 들려주시시오.

♡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463	김순택	1	장년2부		2470	이 용	3	장년2부	문경숙(11)
2464	박경진	19	대학부	정정희(12)	2471	이미숙	3	장년1부	문경숙(11)
2465	친드아유시	19	외선부	장응숙(13)	2472	박동호	19	청년1부	최민석(4)
2466	사민부안	19	외선부	장응숙(13)	2473	이승태	1	장년1부	류병희(1)
2467	강상성	1	청년2부	장중웅(1)	2474	최규식	6	장년2부	이진규(6)
2468	김은경	1	청년2부	장중웅(1)	2475	이평주	19	외선부	장응숙(13)
2469	박삼미	19	청년1부	석성애(1)					

※ 총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5호 새가록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비행기를 타고 가면 선교지에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 왜 왜 9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가라고 하시는가?' 순간 순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이 머리에 스쳤다. '비행기를 타면 몸도 피곤치 않고 선교도 빨리 잘 할 수 있을 텐데...' 하고 혼자 투덜거렸다. 차로 몇 시간이 넘도록 달리고 달리고 끝이 보이지 않았다. 운전하시는 분은 듣기 거부한 현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답배를 계속 피우면서 운전을 하셨다. 습기도 하고 정말 지옥 같은 고난의 여정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지루하고도 먼 거리였다.

선교지에 도착하고 나서야 '휴' 인도의 숨을 쉬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왜 이 먼 거리를 차를 타고 오게 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라는 성령님의 메시지였던 것이다. 우리는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현지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 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운전기사 분이 우리를 향해 '빨리 나오라'며 손짓을 하였다.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경찰에게 잡혔구나!' 하는 생각에 덜컥 두려움이 앞섰다. 우리는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차 있는 곳으로 서둘러 갔다. 순간 '경찰'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는 차를 보았다. 우리는 기사 분만 먼저 보낸 뒤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계속해서 현지 경찰의 단속이 있었지만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정말 이번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놀라운 계획과 보호하심을 더욱더 느끼면서 그저 감사함을 주님께 올려드린다. 우리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실히 깨달았다.

이영환(집사, 7교구)

2007년도 교구모임 장소

교 구	모임 장소
1교구	복지관 지하2층
2교구	영아부실
3교구	제1교육관 301호
4교구	제1교육관 307호
5교구	선교관 지하2층 매추라기홀
6교구	제2교육관 4층
7교구	본당 지하 1층 아멘홀
8교구	제1교육관 407호
9교구	제1교육관 507호
10교구	제1교육관 501호
11교구	제1교육관 201호
12교구	본당 지하 1층 할렐루야홀
13교구	갈릴리홀
14교구	본당 112호
15교구	제1교육관 401호
16교구	제1교육관 207호
17교구	복지관 지하1층
18교구	배다니홀
19교구	제2교육관 코이노니아실

